

자크 엘릴의 사상의 영향과 현시대에서의 적용

이상민(서울국제고 교사)

[주제분류] 형이상학, 기술 철학, 현대 프랑스 철학

[주요어] 자크 엘릴, 기술, 의료 사고, 금융 위기, 비즈니스 윤리, 기술적 진보

[요약문]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소수의 인물이 자크 엘릴에게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 반(反)세계화 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성장 반대론자를 포함한 급진적 환경 운동권은 엘릴의 사상을 가장 충실하게 받아들인다. 미국에서는 미국 사회와 기성교회에 대해 비순응적이고 비판적인 급진적 복음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엘릴의 사상을 받아들이며, 일부 지식인들은 정치학, 사회학, 매스미디어, 기술 철학 같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엘릴의 논지에 깊이 영향을 받는다. 엘릴의 사상의 핵심은 기술, 다시 말해 모든 분야에서의 절대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의 추구가 우리 현대 사회의 관건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런 엘릴의 사상으로부터 현시대의 특징적인 사건과 현상들에 대한 방법론과 해석 도구를 얻을 수 있다. 즉, 엘릴의 연구 방식과 분석방법을 토대로 현시대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과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그 사건들과 문제들에 대한 해석과 분석의 틀로서 엘릴의 사상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의료 사고인 ‘메디아토르 사건’을 엘릴적인 해석 도구를 통해 분석하면, 이해관계의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에서의 결정과 책임이라는 더 일반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전 세계적 금융 위기의 원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엘릴적인 분석을 적용하면, 금융 분석가들이 일반적으로 무시하는 기술적인 요인들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비즈니스 윤리가 엘릴이 제기한 세 가지 문제, 곧 돈에 대한 숭배, 기술에 대한 예속, 필연성에 지배된 노동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 우리 시대에 비즈니스 윤리는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되찾을 수도 있다. 유전공학의 일탈, 실험실에서의 슈퍼바이러스 생성, ‘밀실 생명공학’ 같은 기술적 진보와 연관되는 사건들과 관련하여, 기술적 진보에 대해 엘릴적인 사고를 적용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 사건들을 파악하고 현 세상의 합리성을 이해하려면 기술의 합리성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 서론

20세기의 기술 문명을 비판한 사상가로 주로 알려진 자크 엘뤼(Jacques Ellul 1912-1994)은 역사학과 사회학과 신학이라는 세 가지 연구 영역을 넘나들면서, 60여 권에 달하는 저서와 수백 편의 논문을 저술한다. 그 같은 엄청난 저술 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자로서 과리의 사상계에서와 신학자로서 개신교회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기술과 성서 텍스트에 대한 연구 및 ‘윤리에 관한 삼부작’¹⁾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프랑스 지식인 중 첫 번째 반열에 올라 있고, 그의 사상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더불어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 엘뤼의 사상은 프랑스에서 사후에 와서야 상대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엘뤼의 사상이 받아들이는데 일시적으로 호전된 현상이 나타난 이유로서는, 대형 의료 사고나 금융 위기 같은 사회적 위기, 환경 파괴 위협의 증가, 기후 변화, 핵 재난, 유전자변형 식품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엘뤼를 인정하고 재발견하는데 있어 가장 호의적인 세 집단, 곧 엘뤼가 교수로 지낸 보르도(Bordeaux) 대학 법학부 및 보르도 정치대학과 연계된 몇몇 학구적 서클, 프랑스의 소규모 개신교 사회, 성장 반대론자를 포함한 급진적 환경 운동권은 엘뤼의 사상을 가장 충실하게 잘 받아들인다. 장뤼 포르케(Jean-Luc Porquet)는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소수의 인물들이 엘뤼에게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제기한다.

엘뤼의 사고들은 단지 잊혔는가, 아니면 그의 사고들은 시대에 반발하고, 다른 고찰을 키우며, 논쟁을 유발하며, 사람들의 행동을 부추겼는가? 엘뤼에게 제자들과 반대자들이 있는가? 오늘날 누가 기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따르고 있는가?²⁾

포르케는 엘뤼가 살아생전에 프랑스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의 사상이 퍼져나가지 못한 요인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 우선, 엘뤼는 기술적인 진보를 비판하기 때문에 우파 지식인으로 분류되는데, 당시의 정설에 따르면 진보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면 우파가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그는 알제리 전쟁이나 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관련된 아주 부담스러운 좌파의 투쟁에 가담하지 않는다. 또한 그가 취한 입장들은 좌파에 대한 비판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한 것이어서, 이 입장들은 그로 하여금 맞은편 진영인 우파 진영에 동화되어 있는 상황에 놓이게끔 한다. 예를 들어, ‘민족 해방 전선’(FLN)에 대한 그의 비판적 관점을 사람들은 곱게 보지 않는다. 1968년 5월 혁명에서 그는 학생 운동에 합류함으로써 학생들과 함께 하고 보수적인 동료 교수들에 맞서지만, 학생 운동 자체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학생

1) 엘뤼가 윤리와 관련하여 집필한 삼부작 중 첫 번째 저서는 1964년에 출간된 『원함과 행함 *Le vouloir et le faire*』 이고, 두 번째 저서는 1974년에 출간된 두 권으로 된 『자유의 윤리 *Éthique de la liberté*』이며, 세 번째 저서는 1984년에 출간된 『자유의 투쟁 *Les combats de la liberté*』이다.

2) Porquet(2012), 271.

들을 선동하지도 않고 학생들을 격려하지도 않는다. 그는 자신의 가치 체계를 숨기지 않는 데, 그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문제가 된다. 즉, 기술 사회에 대해 비판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않는 것은 특히 그 당시에는 의심스러운 태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그가 내세에서만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관주의자이며 이 세상에서는 문을 닫고 있다고 비난을 퍼붓는다.³⁾

포르케에 따르면⁴⁾, 오늘날 기술에 대해 논의할 때 프랑스 지식인들이 엘릴의 사상보다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사상에 더 의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기술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는 모든 사람은 하이데거에게서보다 엘릴에게서 기술에 대해 엄청나게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토로한다. 사실상 그들의 접근방식은 매우 다르며, 엘릴은 철학자가 아니라 무엇보다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므로, 엘릴을 하이데거처럼 취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엘릴은 기술의 진정한 본질이 경험 세계에서 확인되는 하이데거 식으로 기술을 결코 해석하지 않는다. 엘릴은 기술이 해방의 도구가 될 수 있듯이 예측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강조한다. 엘릴이 파리(Paris)가 아닌 지방인 보르도에 거주한 것은 그의 사상이 저평가되는데 있어 치명적인 사실이지만, 그가 명성을 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그가 생의 말년에 가서 자신이 저평가되는데 대해 일말의 회한을 느꼈겠지만, 프랑스 전역에 걸쳐 제2의 사르트르(Sartre)와 같은 역할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죽고 나서 10년 후에는 사람들이 그의 생각이 옳았음을 깨닫기를 원했지만, 그의 사상은 인정되지 않고 심지어 오용되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선전’에 대한 그의 분석은 현재에도 뜨거운 관심사로 남아 있다. 즉, 그에게 대단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전’에 대한 분석이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엘릴의 사상과 관련하여, 사회학적 측면과 신학적 측면이라는 두 측면으로 뚜렷이 구분되면서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그의 사상의 특징 및 그 사상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프랑스 내외에서 그의 사상이 어떤 인물들에게 어떤 식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 나가면서, 그 사상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수용되고 있는지 파악해 볼 것이다. 그리고 현대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및 현상들과 관련하여, 대형 의료 사고를 엘릴적인 해석 도구를 통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으며 그 분석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원인에 대해 엘릴적인 분석을 적용함으로써, 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면서, 금융 위기에서의 기술적인 요인의 중요성에 대해 파악해 볼 것이다. 그리고 비즈니스 윤리에 대해서도 엘릴적인 분석을 적용하여, 엘릴이 제기한 문제들을 비즈니스 윤리에서 진지하게 고려함으로써, 비즈니스 윤리가 건설적인 역할을 되찾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전공학의 일탈, 실험실에서의 슈퍼바이러스 생성, ‘밀실 생명공학’ 같은 기술적 진보와 관련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엘릴의 사고에 근거하여 그 진상들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기술적 진보에 대해 엘릴적인 사고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찰하기로 한다.

3) Porquet(2012), 295-296.

4) Porquet(2012), 296-299.

2. 자크 엘뤼의 사상의 특징과 영향

2.1. 자크 엘뤼의 사상과 그 사상에 대한 평가

엘뤼는 오늘날 우리 문명에서 기술은 더는 조금도 제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로 확장되며, 인간의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고 하면서, 현대 사회의 열쇠를 기술적 요인에서 찾아야 함을 보여준다. 즉, 기술 현상은 삶의 다른 모든 면을 재구성하고 인간 자신을 점차 개조하는 현대 사회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데, 기술은 정치나 경제보다 더 사회의 결정요인이 된다. 기술은 자체의 특성들을 통해 중립적 실체가 더는 아니라, 신성한 힘을 부여받은 비인격적 권세가 됨으로써, 인간은 기술을 신뢰하고 숭배대상으로 삼는다. 기술 세계는 인간에게 하나의 환경이 되어버림으로써, 인간은 그 기술 환경 속으로 들어가 거기에 통합된다. 따라서 그러한 인간이 무엇을 보거나 사용하든지 그것은 기술적 대상이며, 인간은 안락과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진 그 기술 환경에 따라 사고한다. 그런데, 기술은 우리 시대에 주요 요인이나 혹은 결정요인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질서와 비합리성과 비일관성을 사회에 유발하고 사회적 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체계’가 된다. 스스로 생성되는 맹목적인 체계는 어디로 가야할 지도 모르고, 자체의 잘못을 바로잡지도 못한다. 자기 뜻대로 기술을 사용하고 통제한다고 자부하는 인간 자신도 기술적 대상이 되어버림으로써, 사실상 기술을 더는 통제하지도 못하고 기술의 방향을 설정하지도 못한 채 기술 체계 속에 편입되어 기술 체계에 완전히 종속된다. 내적 조정 현상인 ‘피드백’ 현상을 박탈당한 기술은, 근본으로 돌아가 체계의 여건을 변모시킬 수도 없고, 자체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인간만이 기술의 잘못된 방향을 바꾸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것이 가능하면 그것을 실현해야 한다는 원리, 다시 말해 기술이 존재하면 그 기술을 사용한다는 원리에서 인간은 벗어나지 못하기에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기술 체계 속에서 기술적 요인에 의해 변화되는 인간은 기술을 이용하기보다 기술을 섬기는 존재가 된다.⁵⁾

엘뤼에 따르면⁶⁾, 기술 체계가 그 속에 자리 잡는 기술 사회와 관련된 거짓된 이데올로기, 곧 ‘기술 담론’은 인간을 해방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기술 사회를 제시할 뿐 아니라, 인간의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기술 사회를 제시하면서, 기술 사회가 인간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정당화한다. ‘기술 담론’이 은폐하려는 기술의 다양한 측면 중 하나는 기술적 진보의 ‘양면성’이다. 기술적 진보는 극심한 환경 파괴와 극도의 사회적 속박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기술적 진보 자체가 해결하는 환경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환경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그렇지만 기술적 진보는 계속 커질 뿐 아니라, ‘혁신’이라는 개념을 통해 특히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의 담론에서 끊임없이 과대평가된다. ‘기술 담론’이 은폐하려는 기술의 측면 중 다른 하나는 ‘예측 불가능성’이다. 오늘날 기술 체계가 너무도 복잡성을 띠고 있는 나머지, 불가항력의 재난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모든 것을 예측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반드시 필요한 예측가능성은 특히 정보의 과잉으로

5) Ellul(2012), 319-334.

6) Ellul(2004a), 89-200.

불가능하고, 불확실성이 지배한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이 가능해지고 심지어 그 가능성이 충분해진다. 그래서 엘릴은 현대인이 무분별한 기술적 성장을 정당화하는 ‘기술 담론’의 현혹에 빠져드는 것을 경고하고, 현대인을 그런 현혹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애쓴다. 따라서 기술 담론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유일한 자유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전 세계적 혼란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자유이다. 그런데도, 기술 체계가 너무도 발달한 나머지 모든 사람이 모든 활동 분야에서 결국 기술의 요구에 순응할 뿐 아니라, 기술이 결국 인간을 해방시킨다고 믿을 만큼 기술을 신성시하고 기술에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기술 현상 혹은 기술 사회와 기술 체계에 대한 엘릴의 분석, 그리고 기술 담론에 대한 그의 비판과 관련된 여러 평가를 통해, 현 시대에서 그의 기술 사상이 지닌 위상과 면모가 가늠된다. 첫째, 기술 비판에 대한 그의 사상이 현재에도 여전히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여전히 관심을 끄는 기술과 관련된 그의 저서들이 그 특성을 유지하는 요인 중 하나는 그 저서들에서 나타나는 그의 예언자적 측면이다. 그는 기술의 힘은 평범한 인간을 마비시키고 분해시키면서 모든 인간사에 개입하고, 기술적 정신 상태는 모든 것을 오염시킨다고 비판한다. 특히, 그의 연구 작업은 인간과 자연의 근본적인 변화 앞에서의 대책으로서 20세기 철학의 다양한 해답과 관점, 곧 기술 앞에서 철학자들이 취하는 다양한 온갖 반응과 소통할 뿐 아니라, 그가 기술에 대한 비판에서 남긴 공헌은 그 중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⁷⁾ 둘째, 기술에 대한 엘릴의 사상은 인간을 해방시키는 힘이라는 것이다. 그는 기술과 기술 체계에 대해 철저히 비판하면서 그 비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영역이나 사회에 대한 문화적 분석 같은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된다.⁸⁾ 특히, 그의 사상이 지닌 장점은 그가 기술의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는 확신에 찬 휴머니스트라는 것이며, 그가 전능한 모습 가운데서 활동하는 기술의 테러리즘을 예리하게 분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분석은 아무 것도 피할 수 없는 기술이라는 탐욕스러운 신의 무서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로 그 때문에, 이 분석은 그의 사상이 지닌 인간을 해방시키는 힘을 입증한다.⁹⁾ 셋째, 기술과 관련된 엘릴의 사상은 ‘탈성장’ 이론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기술과 관련된 그의 분석에 대해 여러 비판이 따르지만, ‘탈성장’으로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때 그의 기술 사상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되고, 기술과 관한 그의 도덕주의적 분석 및 급진적이고 일방적인 특성에 대한 비판은 수정될 수 있다. 따라서 기술 비판과 관련된 엘릴의 도덕주의적 면모에는 통찰력이 있을 뿐 아니라, 기술에 대한 도덕적 고찰과 기술 사회에 대한 비판이 엘릴에게는 분리되지 말아야 한다.¹⁰⁾ 넷째, 엘릴은 기술에 관한 깊은 통찰력을 더불어 ‘기술적 전체주의’를 분석한 ‘탈성장 사회’의 뛰어난 선구자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는 서구 사회의 기술적 과도함과 성장과 발전에 대해 서슴지 않고 비판하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어떤 도덕적 제어도 기술을 저지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술 체계의 전체주의를 분석함으로써, 인간이 무자비하고 돌이킬 수 없는 전체적인 체계를 향해 어쩔 수 없이 나아감을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기술적 전체주의’라는 개념이 부각된다. 따라서 기술의 완벽함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하고, 경제 위기와 환경적인 비극과 기술적인 재난을 통해 기술

7) Chabot(2005), 276-282.

8) Sfez(1994), 243-249.

9) Sfez(2005), 42-44.

10) Rognon(2012), 41-47.

의 전능함에 대해서도 문제 삼아야 한다. ‘기술적 과도함’과 ‘기술적 전체주의’에 대한 엘룰의 비판은 환경 위기와 문명 붕괴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성장’ 프로그램의 주요 부분이 된다.¹¹⁾

엘룰의 사상에서 사회학적 측면의 핵심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 사상의 특징 및 그 사상에 대한 평가가 그러하다면, 신학적 측면에서의 엘룰의 사상은 이렇게 나타난다. 첫째, 이 시대의 현상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돌아서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이 그 자체로서 더는 선포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제시된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단절’ 시대에서의 소망은 침묵하는 하나님의 결정을 거부하고, 인간으로부터 돌아서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에게 맞서 하나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¹²⁾ 둘째, ‘종교적 신심’(la croyance)과 ‘참된 신앙’(la foi)이 구별되듯이, ‘종교’는 ‘계시’에 대립된다. ‘종교적 인간’은 올라가기를 원하나, ‘성서적 하나님’이 택하는 유일한 방식은 인간을 향해 내려간다. 계시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되므로 종교와 반대되는데, 계시 전체는 성육신을 통해 인간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완성된다. 따라서 종교는 늘 힘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을 ‘비무력’(非武力)¹³⁾의 방향으로 이끌고, 인간이 지배 수단들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이끈다. 결국,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해당하는 반면에, ‘종교적 신심’은 종교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과 비(非)기독교적 체험을 근거로 하는 온갖 태도에 해당한다.¹⁴⁾ 셋째, ‘현실’과 ‘진리’는 엘룰 특유의 변증법적 방식을 통해 결합되고 통일된다.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 현실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면서 인간이 감지하는 세상이다. 반면에, 진리는 인간의 궁극적인 종착지와 관련되고, 인간 삶의 의미와 방향과 관련된다. 그런데, 현대 기술 사회는 현실과 진리를 동일시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현실을 진리라고 믿게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인간을 설득하려 든다.¹⁵⁾ 하지만 진리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성육신이 현실 세상에서 진리의 통로임을 인식시키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진리의 승리임을 인식시킨다. 이때 진리와 현실은 공존하면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 통일되고 결합됨으로써,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현실에 드러나고, 결국 현실도 진리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¹⁶⁾

넷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이다. 자유는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진정으로 자유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제시하는 해방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기를 포기하는 것, 곧 힘의 우상 숭배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간은 단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인간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분별없이 행하기를 선호한다.¹⁷⁾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자유는 자아에 대한 완벽한 제어, 완전한 지혜,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 완전무결한 사랑을 전제로 한다.¹⁸⁾ 자유로운 인간은 타인을 사물로서 소유하려고 애쓰지 않는 탐욕이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갈망만을 가지고 기꺼이 자신을 내

11) Latouche(2003), 19 ; Latouche(2013), 9-11 ; Latouche(1994), 110-111 ; Rognon(2012), 218-219.

12) Ellul(2004c), 77-78, 172-178

13) 엘룰은 ‘무능력’(l’impuissance)과 ‘비무력’(la non-puissance)을 구분한다. ‘무능력’은 본래 힘과 능력이 없어서 힘과 능력에 의해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키고, ‘비무력’은 실제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힘과 능력을 쓰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나타낸다. Ellul(2004b), 10-11

14) Ellul(2006), 127, 166-179.

15) Ellul(1981), 32-33.

16) Ellul(2003), 295-296, 307-308.

17) Ellul(1973), 59-71

18) Ellul(1984), 54-55.

어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직접 표현하는 유일한 방식은 대가 없이 거저 줄 수 있다는 것이며, 대가 없이 거저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나타낸다.¹⁹⁾ 다섯째,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체험해야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들 앞에서 책임을 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회가 살아갈 만 곳이 다시 되고 문명이 가능해지도록, 모든 인간과 더불어 모든 인간을 위해 자유를 구현해야 한다.²⁰⁾ 즉, 그리스도인은 해방되지만 세상 속에 남아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체험해야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이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지상에서 이방인과 나그네 같은 존재이므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자신을 조건 짓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는 자신의 환경 및 본래의 진영과 결별하기 위함이고,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의 투쟁에 자유롭게 참여하기 위함이다.²¹⁾

그러한 특징들을 지닌 엘룰의 신학 사상에 대한 평가는 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첫째, 엘룰은 자신의 신학 사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자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뿐 아니라, 시대의 ‘예언자’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엘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죽음의 승리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주는 동시에, 영생에 대한 확신을 준다. 또한 확신과 행동으로서의 기독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세계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엘룰 신앙의 실존적인 토대이다.²²⁾ 엘룰에게 그리스도인의 예언자적 역할은 사회에 다가올 위험을 알리고 경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언자로서의 엘룰의 목적은 현대의 상황에 대해 ‘전적 타자’인 하나님의 말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하며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²³⁾ 둘째, 무엇보다 ‘소망’에 기반을 둔 엘룰의 신학 사상은 그리스도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일치와 연합을 지향한다. 엘룰에게 하나님은 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먼저 침묵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은 인간이 기술적 현실 속에 틀어박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기 때문이다.²⁴⁾ 따라서 엘룰의 신학 사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죽음 신학’에 맞서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재 신학’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셋째, 현대 신학에 대한 엘룰의 기여는 엄청나며, 현대 신학에 진정으로 공헌을 한 그의 신학적 방법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이다. 즉, 그의 신학적 저작이나 성서 주석의 목적은 독자에게 개인적 성찰이라는 반응을 불러일으켜, 독자로서 하여금 어떤 행동 경로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신학에서의 그의 지상 과제는 상호 비판적인 변증법 속에서 세상과 복음을 마주치게 하고, 그 둘의 상관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신학과 현실을 결부시키기를 열망하는 그에게,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현대 세상에 영향을 주는 특별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도록 돕는데 기여해야 하는 신학의 목적은 소망과 자유를 전하는 것이다.²⁵⁾

엘룰의 신학 사상은 기술 사상으로 대표되는 사회학적 측면의 사상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역사학자와 사회학자로서 제도사, 기술, 혁명, 선전, 정치 등과 관련된 그의 탁월한 연구 업적에 비하

19) Ellul(1974), 129-130, 153-156.

20) Ellul(1973), 307-318.

21) Ellul(1984), 8, 15-18, 68-69.

22) Dravasa(2005), 51, 56

23) Clendenin(1987), 23-24

24) Lavignotte(2012), 75.

25) Clendenin(1987), 141-145.

면, 그의 신학 사상은 단지 부차적일 따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그의 신학 사상이 주목을 받고 높이 평가되는 것은, 그 신학 사상이 그의 연구 업적 가운데 중심으로 평가되는 기술 사상과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신학 사상이 그의 기술 사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의 기술 사상에서 나타나는 주된 개념으로서 기술 체계는 전체성과 통일성을 지향한다. 기술 체계가 모든 활동을 포괄하고 자체의 고유한 논리를 갖고 있으며 모든 문화를 점진적으로 동화시키는 전체적인 체계라면, 기술 체계와 관련된 변증법적 요인이 더는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와 같이, 기술 체계가 전체적이라면 변증법적 요인은 기술 체계를 벗어난 외부에 존재해야 하는데, ‘초월자’만이 기술 체계 외부에 있을 수 있다. 결국, 특유의 신학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엘릴의 기독교 신앙은 기술 체계 밖에 존재하고 닫힌 세상에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에 의거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지배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해방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결정지어짐과 소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인간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기술의 신성함을 더는 숭배하지 않고 기술의 신성함을 떨어뜨리면서, 기술 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 즉,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해방되도록 되어 있고, 기술 사회의 모든 우상에 대해 그 신성함을 떨어뜨리는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으며, 자신의 삶의 방식을 통해 모든 희망과 절망을 넘어서는 소망을 증언하기로 되어 있다.²⁶⁾

2.2. 자크 엘릴의 사상의 영향과 계승

엘릴의 사상의 계승자 중에는 대중매체와 정치무대를 통해 모든 프랑스인에게 알려진 이들이 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유럽의회 의원 조제 보베(José Bové)와 정치가 노엘 마메르(Noël Mamère)이다. 비록 그들은 엘릴의 제자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명성은 자신들의 스승을 훨씬 능가한다. 또한 유명 작가 장클로드 기이보(Jean-Claude Guillebaud), 철학자 도미니크 부르(Dominique Bourg), 경제학자 세르쥬 라투슈(Serge Latouche) 등이 대표적 인물로서, 그들은 엘릴의 사상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반(反)세계화 운동가로 유명한 조제 보베는 프랑스의 ‘엘릴주의자’²⁷⁾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다. 보베로 하여금 대중매체의 전면에 나오게끔 한 상징적 활동은,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에 항의할 목적으로 1999년 8월 맥도날드 매장을 망가뜨린 사건이다. 세계화와 정크푸드(junc food)의 상징 중 하나인 맥도날드 매장을 망가뜨린 그의 행동을 통해 음식 소비와 관련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공론화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특히, 1999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의 세계무역기구 정상회의는 잘 조직된 엄청난 시위들 때문에 실패로 돌아간다. 거기서 보베는 반세계화 운동을 국제적으로 조직한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등장한다. 2001년에 그는 반(反)

26) 이상민(2019), 135-136.

27) 엘릴 자신이 ‘-주의’, ‘-주의자’라는 표현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사상이 어떤 ‘주의’로 굳어지거나 화석화되는 것을 몹시 경계했으므로, 여기서 ‘엘릴주의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엘릴의 사상을 따르고 그 사상을 실천에 옮기려는 사람을 나타내는 데 있어 그 표현 외에는 마땅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표현을 쓰기로 한다.

세계화 투쟁가들과 함께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다. 2004년에 그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농민 노동조합들의 연맹을 결성하는 국제적 운동인 ‘비아 캄페시나’(Via Campesina)의 대변인을 맡는다. 그 운동은 다국적 종자 기업과 농산물 가공기업에 저항하고 ‘식량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 투쟁을 지원한다. 그는 다양한 시민 불복종 운동 및 들판 한가운데서의 유전자변형 작물의 파괴 활동을 통해, 프랑스에서 유전자변형 작물의 재배가 발전하는 것을 무력화시킨다. 결국, 2008년에는 그를 포함한 투쟁가들이 벌인 단식 투쟁 끝에,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영토에서의 유전자변형 작물 재배에 유예기간을 둘 수 있게 하는 유전자변형 작물에 맞선 보호 법률조항을 제정한다. 2009년에 유럽의회 의원에 선출된 그는 유럽의회 국제 농상공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명되어 왕성한 활동을 한다.²⁸⁾

엘릴의 사상은 보베에게 기술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의 토대를 제시하기에, 보베는 엘릴에게서 비판적 분석의 방향과 영적 비전을 찾는다. 보베는 ‘엘릴주의자’라는 수식어를 이렇게 규정한다. 즉, ‘엘릴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지배적인 체계 전체에 대한 의심의 사고를 펼치는 것이고, 사회를 구성하는 것 전체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을 하는 것인데, 자율적인 사고를 형성하기 위해 모든 것이 철저히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 문제나 이스라엘 문제와 같은 몇몇 문제와 관련된 엘릴의 태도를 비판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투쟁을 여전히 강화시켜 주는 엘릴의 강력한 직관적인 분석을 인정한다. 즉, 기술 체계의 이상들에 대한 파괴, 선전의 해체, 살아 있는 사람의 상품화에 대한 비판, ‘식량 주권’의 증진, 미리 설정된 모든 사고에 대한 거부, 비인간적이 된 제도들의 해체 등이 그런 분석에 해당한다.²⁹⁾

노엘 마메르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중심으로 프랑스 언론계에서 활동하고, 나중에 정치에 입문하여 프랑스 사회당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치경력을 쌓는다. 이후에, 2002년에는 프랑스 녹색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5.25 퍼센트를 득표함으로써, 언론과 정치라는 이중적인 인생 역정을 통해 프랑스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 된다. 그는 보르도 정치대학에 입학하면서 엘릴을 만나게 되고, 기술과 선전과 마르크스 사상에 대한 엘릴의 강의에 매료된다. 그는 마르크스의 결정론이든, 기술적 진보가 늘 인류의 행복을 담보한다는 당시 좌익의 결정론이든, 시장 경제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준다는 자유주의적 결정론이든, 기계들의 지배가 지상낙원의 회복으로 인간을 이끈다는 좌익과 우익에 공통된 기술담론적 결정론이든, 모든 결정론을 경계하는 엘릴의 태도에 깊은 영향을 받는다. 그리하여 그는 스승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더불어 자신의 사상이 스승과 근접함을 느끼고서 함께 투쟁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우선, 그는 아키텐³⁰⁾ 연안 개발에 반대하는 환경보호 투쟁에 참여하는데, 연안을 콘크리트로 뒤덮어 개발하려는 계획에 저항하는 운동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자신이 공동 부책임자로 있던 지역 텔레비전 방송에서 제작하기도 한다. 또한 그는 엘릴과 함께 바캉스 촌을 만들려는 계획으로 사라질 위협에 놓인 숲을 보호하기

28) Rognon(2012), 52-53.

29) Rognon(2012), 54-57.

30) 아키텐(Aquitaine).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5개의 ‘도도’(le département)로 이루어진 ‘지역권’(la région)으로서 중심 도시는 보르도이다.

위한 투쟁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마을을 둘로 갈라놓는 고속도로 설계에 맞선 반대 투쟁을 하기도 하며, 나중에는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투쟁에 참여하기도 한다.³¹⁾

이와 같이, 엘릴과의 만남은 마메르에게 결정적인 것이 되고, 이 만남은 그의 지적 여정과 참여 활동 전체의 토대가 된다. 그래서 그는 엘릴의 사상을 선구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사려 깊고 확고하며 확신에 찬 제자로서 그 선구자의 뒤를 따른다. 특히, 그는 엘릴의 사상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의 현실에 들어맞는 것으로 여기는데, 그는 엘릴이 지나치게 통찰력이 있던 나머지 자신의 시대보다 앞서 나가 너무 일찍 옳은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그는 엘릴이 마르크스 사상이 지배적 경향으로 군림하던 시기에 반동으로 규정되고 오랫동안 몰려나 있었다고 하면서, 이는 엘릴이 우리 제도들에 대한 비(非)마르크스적 비판을 제기한 첫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엘릴이 환경보호 운동이라는 사고의 토대를 놓은 환경보호 운동의 시조이며, 우리의 생산방식과 삶의 방식의 변화를 식별한 인물이기 때문에, 엘릴의 저서들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엘릴의 사상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꽤 강력하다고 하면서, 엘릴의 사상은 일시적인 사상이 아니라 매우 현 시대적인 사상이라고 밝힌다.³²⁾

장 클로드 기이보는 조제 보베와 노엘 마메르와 더불어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엘릴주의자’로 꼽힌다. 정치가인 두 사람에 비해 기이보는 유대·기독교의 윤리적 유산으로 특징지어진 계층에서와 지식 계층에서 인정받고 높이 평가된다. 여러 신문과 잡지에서 기자, 특파원, 편집자, 시평 담당자를 지낸 그는 엘릴의 사상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오늘날 기이보는 재능 있는 수필가로 유명한데, 그의 작품은 나올 때마다 큰 성공을 거둔다. 1995년부터 2009년까지 그는 현시대의 혼란에 대해 탐구하는 8권의 수필집 시리즈를 펴낸다. 그 수필집 시리즈는 현재의 인간 상황과 관련된 역사적이고 인류학적인 변화들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서, 각 수필집에는 엘릴적인 영감이 깊이 뚫고 지나가고 그 영감으로 채워져 있다. 2001년에 그는 ‘새로운 지배’에 대해 탐구하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작품 『살아 있는 삶 *La Vie vivante*』은 그의 저서들 중 가장 엘릴적인 저서이다. 그의 논지는 극도로 치밀하면서도 두려운 새로운 지배 형태들에 맞서 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그 새로운 지배 형태들은 삶을 단순한 상품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인간성의 원리를 위협에 빠트린다. 그런 지배 형태들의 도전 앞에서 기이보에게 기독교는 인간의 ‘살아 있는 삶’에 대한 옹호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³³⁾ 비록 그 저서에서 엘릴이 단지 3번만 인용되어 있더라도³⁴⁾, 기이보는 ‘기술담론의 비등(沸騰)’, ‘가속화의 가속화’, ‘기술과학 체계’, ‘기술담론적인 압제’, ‘대규모 상업 경쟁 속에 통합된 스포츠’, ‘내면의 기술화’ 등을 언급하면서, 기술 사회가 빠진 곤경에 대한 해결책 가운데 ‘자발적인 검소함’, ‘지속가능한 탈성장’ 혹은 ‘공평한 탈성장’을 제시한다.³⁵⁾

31) Rognon(2012), 231-233.

32) Rognon(2012), 235-236.

33) Guillebaud(2011), 273.

34) Guillebaud(2011), 131, 139, 245.

35) Rognon(2012), 174-175.

기이보는 젊은 시절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멀어졌으나, 엘릴의 신학적 저서들을 읽은 것이 그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그를 열광시킨 나머지, 엘릴의 존재는 그가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갈 때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된다. 그는 엘릴 저작의 두 측면, 곧 사회학적 측면과 신학적 측면을 떼어놓은 것은 엘릴의 사상을 왜곡해서 전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면서, 엘릴이 기독교적 소망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잊어버리는 것은 엘릴을 기술 혐오적인 반동분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엘릴에게서 그 두 측면을 분리하는 것은 마치 키르케고르에게서 기독교적 측면을 없애버리고 키르케고르의 저서를 읽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기이보가 보기에는, 엘릴의 저작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엘릴의 신앙을 무시할 수 없다. 오랜 기간 동안의 엘릴과의 동행, 그리고 자신의 지적이고 영적인 여정을 위해 엘릴이 준 영감의 원천, 이 두 요소를 통해 그는 엘릴의 사상이 왜곡될 위험성에 대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 때문에, 그는 가능한 한 충실하게 엘릴의 사상을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을 절감한다.³⁶⁾

엘릴의 사회학적 저작에 대해 가장 깊고 엄밀하게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로 평가되는 도미니크 부르는 엘릴 저작의 중요성과 독창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엘릴의 저작을 엄밀히 비판하며 자신의 사상을 구축하기 위해 엘릴의 저작을 사용한다. 특히, 부르는 엘릴이 제시한 ‘기술의 자율성’이라는 논제를 다양한 양상으로 비판하면서, 기술에 대한 엘릴의 접근방식이 지닌 단점을 지적한다. 즉, 엘릴이 취하는 입장의 취약성은 기술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보다는 도덕적 분석에 토대를 둔다는 것이고, 지나칠 정도로 급진적이며 일방적인 특성을 띠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부르는 엘릴에게서 기술적 역동성과 관련된 시장과 금융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여량이 없음을 비판한다.³⁷⁾ 이와 같이, 부르는 엘릴의 저작에 대한 가장 심오한 논평을 하고 엘릴의 주장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하면서도, 자유인의 전형과 매력적인 인격의 소유자로서 엘릴을 우리 현대 사회에서 독창적인 참여 활동을 하는 극히 강한 확신을 가진 인물로 평가한다. 물론, ‘기술의 절대적 자율성’을 내세우는 엘릴의 주장은 그에게 오류인 듯이 보인다. 그렇지만 기술들의 토대가 물리 법칙에 의해 형성되고 기술들의 역사적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는 ‘기술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르는 엘릴에게서 선구자의 면모를 인정하는데, 엘릴은 체계적 의미에서 그런 자율성의 개념을 주장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것이다.³⁸⁾

2000년부터 부르는 트루아(Troyes) 기술대학의 교수로서 정치철학과 기술철학과 생태학을 가르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학제 간 연구센터’를 만들어 이끌고 나간다. 하지만 2006년에 그는 로잔(Lausanne) 대학교 교수로 임명되고 나서 자신의 강의 전체를 환경 문제로 방향을 전환하는데, 그의 강의는 환경 정책 철학, 생태학적 민주주의, ‘자연’이라는 개념의 역사 등과 관련된다. 그때부터 그의 철학 사상은 진정한 방향 전환이 시작되고, 그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점차 문제 삼으면서 ‘탈성장’ 진영에 가담하게 된다. 그는 그런 방향 전환과 더불어 엘릴의 저작에 대한 자신의 이해방식을 새롭게 하고, 엘릴의 급진

36) Rognon(2012), 171, 176.

37) Rognon(2012), 37-40.

38) Porquet(2012), 277-281.

성에 관한 예전의 자신의 판단을 수정한다. 그가 엘릴에게 제기한 비판들은 엘릴에게 있어 기술에 대한 비판의 도덕적 토대와 관련된다. 그에 반해, 그때부터 그는 엘릴의 ‘도덕주의자’라는 면모에 통찰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엘릴에게 도덕적 고찰과 기술 사회에 대한 비판이 분리되어 버리면 엘릴의 사상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사실을 의식한다. 특히, 그는 엘릴의 사상이 시대에 뒤져 있지 않다고 하면서, 해가 지나감에 따라 엘릴의 저작은 점점 더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간주한다.³⁹⁾

‘탈성장’ 운동의 대변자 중 하나로 여겨지는 세르쥬 라투슈는 엘릴의 저작에 힘입어 성장에 대한 자신의 비판을 정립한다. 본래 가장 최적화된 성장기술의 선택에 관심이 있던 그는 기술에 대한 자신의 고찰을 더 심화시킬 필요성을 느낀다. 그런데, 기술과 관련된 엘릴의 저작을 읽은 것이 이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⁴⁰⁾ 특히, 라투슈는 엘릴을 탈성장 사회의 초기 사상가로 규정한다.⁴¹⁾ 라투슈에 따르면⁴²⁾, 서구 사회의 기술적 과도함, 성장과 발전, 기술적 전체주의에 대한 엘릴의 비판은 ‘탈성장’ 프로그램의 주요 부분을 이룬다. 경제학자로서 라투슈는 경제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엘릴의 주장들이 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나머지 그는 기술 체계의 자율성에 대해 자각한다. 물론, 정통 경제 이론에서 기술은 어떤 요인들의 결합으로서만 단지 특징지어지기 때문에 기술은 완전히 사라져 있는 동시에, 모든 발전 계획은 기술적이다. 그런 간극이 그로 하여금 그가 엘릴에게서 이해한 기술의 실재, 기술 체계, 기술 체계의 법칙을 자각하게 한다. 그런 토대에서 라투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공생적 탈성장’(la décroissance conviviale)이다.⁴³⁾

라투슈는 기술 체계의 전체주의에 대한 엘릴의 강력한 분석을 통해, 기술 체계가 지닌 힘의 한계라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밝힌다. 기술적 전체주의에 대한 엘릴의 분석을 통해 라투슈가 강조하는 것은, 기술의 완벽함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대규모 기술 체계의 실패와 균열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 위기, 환경적 비극, 기술적 재앙은 기술의 편재성과 전능함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⁴⁴⁾ 이와 같이, 라투슈는 기술에 대한 비판이라는 독창성을 지닌 엘릴의 사상의 급진성에 이끌려 엘릴의 사상에 매혹된 나머지, 엘릴을 기술과 관련된 깊은 통찰력을 지닌 사상가이자 ‘탈성장’의 뛰어난 선구자로 간주한다.⁴⁵⁾

포르케에 따르면⁴⁶⁾, 데이비드 길(David Gill)은 다른 나라들보다 엘릴의 사상을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미국에서의 전형적인 ‘엘릴주의자’이면서, 엘릴의 사상의 확산을 가장 열성적으로 추구하는 인물 중 하나이다. 이는 그가 엘릴에게서 우리 시대의 가

39) Rognon(2012), 41-47.

40) Rognon(2012), 217, 220-221.

41) Latouche(2006), 231

42) Latouche(2013), 9-11.

43) Porquet(2012), 281-284.

44) Latouche(1994), 103-105, 110-111.

45) Rognon(2012), 218-219.

46) Porquet(2012), 295.

장 중요한 예언자이자 사회비평가이자 신학자의 면모를 발견한 때문이다. 그는 밀접히 연결된 두 영역에 따라 자신의 소명을 규정한다. 하나는 기독교 공동체의 삶과 노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들과 윤리를 이해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다양화되고 세계화된 복잡한 경제 세계에서 윤리적으로 건강한 조직들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그는 현 세상에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 엘월의 유산을 필요로 한다고 여긴다.⁴⁷⁾

데이비드 길은 미국에서 엘월의 저작을 받아들이는 현상에 대해 분석하면서, 미국 지식인들이 왜 엘월의 사상에 동조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데이비드 길에 따르면⁴⁸⁾, 우선, 미국은 기술적으로 가장 발달한 나라로 남아 있다. 기술은 물론 이롭기는 하지만, 기술에 의해 인간성 말살, 소음, 오염, 삶의 기계화 등의 과정이 생겨난다. 미국에서는 그런 기술적 진보의 폐해가 이미 간파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지식인들은 기술의 대한 엘월의 뛰어난 분석에 주목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는 파리와 런던 같은 유럽의 수도들처럼 유일한 지식 중심지가 없다. 따라서 엘월이 파리의 사상가가 아니라라는 점은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 심지어 미국인들은 주변적인 사상가를 선호하기도 한다. 그래서 아마도 프랑스의 변방인 보르도의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의 예언적인 말을 더 잘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미국인이 교회에 관여되어 있다. 그 때문에, 엘월 같은 기독교 지식인이 미국에서 청중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게다가, 미국의 교회들은 성서를 향해 방향이 설정된 개신교이다. 그렇게 많은 조건이 미국에서 엘월의 사상과 그의 살아 있는 신앙을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이, 엘월 같은 사상가에게 특히 호의적인 미국과 같은 토양에서, 데이비드 길은 엘월의 저작을 두 측면으로 구분하면서 미국에서 엘월의 저작을 받아들이는 영역들을 더 깊이 분석한다. 즉, 미국인들이 엘월의 저서들과 사고들을 발견하기 위해 따른 두 가지 길이 있다. 그 첫 번째 길은 신학적인 길이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마르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의 투쟁에 호의적인 미국 남부의 침례교 백인 목사들을 중심으로, ‘남부 성직자 위원회’는 엘월의 저서들에 대한 상당수의 글과 서평을 발간한다. 이와 병행하여 1960년대에는, 존 하워드 요더(John Howard Yoder)와 버나드 엘러(Vernard Eller) 같은 재세례교도들과 메노파 교도들이 엘월의 논지를 논의하기 시작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기간에는 서저너즈(Sojourners) 공동체 운동의 짐 윌리스(Jim Wallis) 같은 상당수의 젊은 복음주의자들이 엘월을 발견하고서, 자신들의 급진적인 기독교 전통에 엘월을 더하여 그 전통을 키워나간다. 특히, 미국에서 엘월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집단 중에는 급진적인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은 미국 사회와 기성교회의 방향에 대해 비순응적이고 극도로 비판적인 무정부주의적 경향을 띤다. 그들은 성서에 대한 무정부주의적 재해석 및 현실 문제에 대한 성서적 재해석, 선거 정치에 대한 비참여 및 공동체 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 행동 참여, 하나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해 인간에 대한 불복종까지 나아가는 국가에 대한 비판적 감시, 자발적인 검소함에 토대를 둔 반문화적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촉진한다. 그런데, 그들의 영감의 원천 중 하나가 바로 엘월이다.⁴⁹⁾

47) Rognon(2012), 153-156.

48) Gill(2006), III.

미국인들이 엘릴의 저서들과 사고들을 발견하기 위해 따른 두 번째 길은 ‘기술 사회학’이라는 길이다. 엘릴의 신학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도 많은 미국인이 엘릴의 사회학에 열광하기 시작한다. 특히 1960년에는, 캘리포니아의 산타 바바라(Santa Barbara)에 소재한 싱크 탱크인 ‘민주주의 제도 연구센터’의 책임자 존 윌킨슨(John Wilkinson)이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에게 기술과 관련된 최근의 가장 훌륭한 저서들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것은 틀림없이 엘릴의 『기술 혹은 시대의 쟁점 *La Technique ou l'enjeu du siècle*』이라는 헉슬리의 대답을 듣고서, 윌킨슨 자신이 그 저서를 번역하여 1964년에 『기술 사회 *Technological Society*』라는 제목으로 대형출판사를 통해 출판한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기술과 생태학과 인권과 관련하여 엄청난 토론이 벌어지는데, 엘릴의 그 저서는 즉시 꽤 인기를 얻는다. 이어서 『선전 *Propagandes*』, 『정치적 환상 *L'illusion politique*』, 『혁명에 대한 분석 *Autopsie de la révolution*』 등이 번역된다. 그리하여 미국 전역에는 정치학, 사회학, 매스미디어, 기술 철학 같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엘릴의 관점과 논지에 깊이 영향을 받은 작가와 교수와 사회 활동가들이 나타난다.⁴⁹⁾

오스트리아 출신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이반 일리치는 남아메리카의 미국형 현대화 정책에 반대하면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와 획일화된 교육 정책은 문화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미국형 문화에 적응을 강요한 것이라 비판한다. 특히, 그는 기존의 학교 교육은 남아메리카의 현실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새로운 교육제도의 실현을 주장한다. 그는 멕시코에 ‘문화교류문헌자료센터’를 설립해 당시 전 세계가 추종하던 개발 이념에 도전하고, 현대 문명에 근원적인 도전을 던진다. 그는 사회학, 철학, 경제학, 여성학, 종교학, 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며, 가장 근원적이면서 급진적인 사상가로 평가받는다. 1965년에 일리치는 『기술 혹은 시대의 쟁점』을 영어로 번역한 『기술 사회』를 읽음으로써 충격을 받고 엘릴 저작의 진가를 발견한다. 이후로 10년간 그는 환경, 사회 구조, 문화, 종교 등에 대한 기술 수단의 지배에서 비롯된 사회적 결과들을 연구한다. 그는 『자크 엘릴에 대하여 *Sur Jacques Ellul*』의 서문에 실린 엘릴에 대한 헌사에서 엘릴을 ‘자크 스승님’으로 호칭하면서, 30여 년 전부터 자신의 행로에서 결정적으로 방향을 바꾸게 한 것이 엘릴이며, 자신은 엘릴이 앞서 간 족적을 따라온 것이라고 밝힌다.⁵¹⁾

3. 현시대에서의 자크 엘릴의 사상의 적용

3.1. 자크 엘릴의 연구방식과 분석방법의 특징

49) Rognon(2012), 157-158.

50) Rognon(2012), 158.

51) Illich(1994), 11.

트루드 샤프트네는 엘릴의 이름과 연결된 다양한 사회 통념 가운데 엘릴의 사상이 분류할 수 없는 사상이라는 견해가 상당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엘릴에게 그런 명성이 따라 붙는 것은 공연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즉, 엘릴이 60권에 가까운 저서와 수백 편의 논문을 집필한 풍성한 이력을 통해 추구한 유일한 목적은, 인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들 앞에서 인간의 자유를 옹호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가 택한 방법들은 너무도 다양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우파 지도자들과 그들의 견해에 대해 적대적이지는 않더라도 이에 대해 무관심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오해의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자신의 진영인 좌파를 비판하는 데 열중한다. 그는 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 예를 들어, 알제리 전쟁 기간 동안에는 알베르 카뮈(Albert Camus)의 입장과 그리 다르지 않았고⁵²⁾, 나중에 이스라엘이나 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관련하여 그가 행한 역설적인 연설은 진보주의적 성향과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를 유형적으로 굳이 분류해야 한다면, 그의 기독교 신앙이 그의 무정부주의적 신념을 넘어선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는 무정부주의 사상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가 분류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그의 입장표명에서 기인하기보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그의 저작에서 훨씬 더 기인한다.⁵³⁾

트루드 샤프트네에 따르면⁵⁴⁾, 법역사학자로서 엘릴은 보르도 법과대학과 보르도 정치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지만, 그는 자신의 전공 영역의 한계를 즉시 뛰어넘는다. 즉, 로마법 전공 교수이자 제도사 전문가인 그는 현대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운명에 대한 고찰, 더 일반적으로는 기술 사회의 틀 안에서의 인간 상황에 대한 고찰을 확장시키려고 한다. 특히 대학에서 과도한 전공 전문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다방면의 자유기교가로서 그는 무엇에나 손대는 인물로 여겨지는 위험을 자초한 것이다. 특히, 그는 윤리적 문제들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다시 도입함으로써 사회과학에서 지배적인 불가지론을 반박한다. 그 때문에, 인문 과학의 객관주의적 환상에 대한 그의 비판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연구 작업을 떠올리게 한다.

52) 알제리 전쟁이 시작되자 프랑스는 양분된다. 우파는 이 전쟁을 두 민족, 두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일단의 분리주의자들의 반역으로 간주하며 단호한 진압을 요구한다. 반면에, 좌파는 이 전쟁을 두 국가의 전쟁, 더욱이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적 전쟁으로 간주하고 알제리의 독립을 적극 지지한다. 카뮈는 식민주의의 제도적 남용, 아랍인들에 대한 멸시, 부당한 농지분배와 소득분배 등과 관련한 아랍인들의 항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그에게 민족 독립은 순전히 감상적 공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다. 왜냐하면 역사상 단 한 번도 알제리 민족국가란 존재해 본 적이 없고, 경제적 독립 없는 정치적 독립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당시 그의 생각은 식민주의적 사고라고 비난받지만, 그가 보기에 알제리의 존립은 알제리 토착민과 프랑스 이주민의 일치단결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 특히, 그는 역사를 전진시킨다는 구실로 전쟁을 시작하지만 전쟁은 매번 야만과 비참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하면서, 「민간인 휴전을 위한 호소」를 발표하고 죄 없는 민간인을 학살로부터 구하자고 간청한다. 그는 식민주의적 통합에도 새로운 민족국가의 건설에도 반대하는데, 그의 결론은 차이의 공존, 즉 연방제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의 모호한 주장을 비웃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는 알제리의 프랑스인과 아랍인 모두에게서, 프랑스의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서 배신자로 낙인찍힌다. 유기환(2014), 83-84.

53) Troude-Chastenet(2005), 21.

54) Troude-Chastenet(2005), 21-23.

물론, 엘릴과 프랑크푸르트학파는 ‘기술의 자율성’이라는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이 어긋난다. 그럼에도 엘릴에 이어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에게도 기술 관료적 의식에 의해 도그마가 된 실증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토대에 대한 비판, 과학적 낙관주의에 비판, 경험적 방법의 규범적인 논리적 귀결에 대한 비판이 다시 발견된다.

트루드 샤스트네는 ‘체계’나 ‘단한 세계’로 고착되기를 거부하는 엘릴의 사상에 대해 계속 그 원천이 되어주는 주제들을 다음같이 제시한다. 즉, 확고부동한 두 극단 사이에서의 지속적인 긴장으로서 체험된 실존, 인간이 된 동시에 ‘절대 타자’(le Tout Autre)로 남아 있는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놓인 유일한 존재로서 간주된 개인, 세상에 대한 비순응 원리, 권력 앞에서의 ‘인격’(la personne)의 보호, 삶의 부조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신앙으로의 도약 등이 다. 특히, 키르케고르, 칼 바르트, 마르크스라는 세 명의 천재적인 변증법론자는 엘릴의 이론적 지식의 핵심을 이룬다. 반면에, 엘릴은 하이데거와의 모든 지적인 연관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는 엘릴이 하이데거가 독일 나치에 가담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엘릴의 견해로는, 정치라는 부차적인 것에 대해 그렇게 터무니없이 잘못 생각하는 하이데거 같은 사상가는 현 세상의 의미라는 요점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도 될 수 없다. 더 나아가, 엘릴은 하이데거가 지나치게 추상적인 언어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한다고 비판한다. 즉, 젊은 시절부터 엘릴은 상황의 중심에 있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 기술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엘릴과 하이데거의 결론이 많은 점에서 서로 일치하더라도, 그들의 방법론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의 본질에 대해 형이상학적 문제 제기를 하지만, 엘릴은 기술 체계의 특성들을 사회학적으로 기술한다.⁵⁵⁾

트루드 샤스트네는 기술, 다시 말해 모든 분야에서의 절대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의 추구가 우리 현대 사회의 관건을 이룬다는 것이 엘릴 사상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기술에 대한 엘릴의 비판을 압축하여 설명한다. 즉, 사실상 인간은 기술을 사용한다고 믿고 있으나 기술을 섬기는 것이 인간이고, 현대인은 자신의 도구들의 도구가 된다. 수단은 목적으로 변화하고, 필연성은 미덕이 되어 버리며, 기술 문화는 외재되어 있는 어떤 것도 용인하지 않는다. 우리는 후기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 속에 기술 체계가 자리 잡은 기술 사회는 점점 더 기술 체계와 혼동된다. 기술 체계는 자율성, 단일성 혹은 불가분성, 보편성, 전체화로 특징지어지는 기술 현상 그리고 자가 증식, 자동성, 인과적 발전, 양면성으로 규정되는 기술적 진보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기술 사회는 기술 체계로 단순화되지 않고 둘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하는데, 암이 인체에 속해 있듯이 기술 체계는 기술 사회에 속해 있다. 결국, 기술은 인격화되고 신경화된 기술이 되어 버리고, 권세와 동일시되는 기술이 되어 버리며, 더욱이 괴물과 동일시되는 기술이 되어 버린다.⁵⁶⁾

다음으로, 트루드 샤스트네는 『기술 혹은 시대의 쟁점』에 나오는 ‘인간의 기술들’ 가운데 선전은 아주 일찍부터 엘릴의 관심을 끈 것이라고 하면서, 선전과 관련된 엘릴의 분석을 조명한다. 사회학자로서 엘릴은 현대인을 기술 사회 속에 통합하는데 절대 필요한 것으로 선전을 묘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선전을 하나님의 말이 확산하는 데 장애물로 간주

55) Troude-Chastenet(2005), 23-24.

56) Troude-Chastenet(2005), 25.

한다. 선전은 정치를 이미지 세계로 들어가게 하고, 민주주의적 작용을 눈속임 행위로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정보도 그 자체로 선전에 맞선 보장책이 되지 않는다. 즉, 여론은 선전에 대한 받침대 구실을 하기 전에, 정보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따름이기 때문에, 정보는 선전의 존재 조건이다. 따라서 개인이 정보를 더 얻을수록 선전에 더 잘 저항한다는 것은 틀린 사실이다. 게다가, 기술 사회 안에서 정보는 심지어 개인의 인간성을 박탈하기도 한다. 선전은 가장 교양 있고 가장 정보가 많은 시민, 곧 지식인들을 우선적으로 겨냥한다. 정보를 얻는 채널이 더 많을수록 선전의 조작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다. 선전은 권력에도 필요하지만 시민에게도 필요하다. 기술 사회에서의 정보는 반드시 복잡하고 분산되어 확실하지 않으며 비관적이지만, 반면에 선전은 상황을 정돈하고 단순화하며 시민에게 위안을 준다. 따라서 ‘선전하는 자’와 ‘선전 당하는 자’ 사이에는 어떤 공모관계가 자리 잡는다. 민주주의는 존속하기 위해 선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본래 선전은 민주주의를 부정한다. 선전의 대상인 민주주의는 자체를 선전의 형태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도덕적 측면에서 좋은 선전이나 혹은 나쁜 선전이란 없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선전이나 혹은 효율적이지 않은 선전이 있다.⁵⁷⁾

이어서 트루드 샤프트네는 정치 및 현대 국가와 관련된 엘뤼의 분석을 소개한다. 기술 사회에서 정치는 ‘필연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의 영역에 속한다. 위정자들은 실제로 기술전문가에게 주어진 주도권의 허울만을 간직하기 위해 행동한다. 게다가, 기술 사회는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혼동을 전제로 하는데, 모든 것은 정치적이지만 정치는 환상에 불과하다. 정치는 종교를 대체하고, 현대 국가는 신의 위치를 차지한다. 민중의 주권은 허구일 따름이며, 보통선거는 좋은 위정자들을 선별할 수 없고 위정자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또한 민중이 자신의 대표자들을 통제한다고 믿는 것만큼이나 선출된 의원들이 전문가들을 통제한다고 믿는 것도 착각이다. 기술 국가는 본질적으로 전체주의적이며, 국가의 사법 형태와 이데올로기적 껍데움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기술의 보편성이라는 결정적 사실 앞에서 정치 제도적 특수성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모든 체제는 ‘효율성’과 ‘힘’이라는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 그 때문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동서진영 간의 갈등에 대한 엘뤼의 무관심도 거기서 비롯되고, 다른 형태의 독재에 맞서 어떤 형태의 독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엘뤼의 거부도 거기서 비롯된다. 달리 말해, 현대 국가와 기술적인 이데올로기의 결합을 통해, 정치는 환상적이 될 뿐만 아니라 위험해진다. 그렇지만 엘뤼의 메시지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지배를 강화하기만 할 따름인 탈정치를 옹호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엘뤼의 메시지는 국가라는 괴물 앞에서 개인적 저항의 힘들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엘뤼에 따르면⁵⁸⁾, 인간에게 있어 존재한다는 것은 저항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통합이라는 온갖 전체주의적 시도들에 맞서 ‘긴장들’을 키워나가야 한다. 결국, 오래전부터 사라진 민주주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⁵⁹⁾ 이와 같은 엘뤼의 연구방식과 분석방법을 토대로 현시대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과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그 사건들과 문

57) Troude-Chastenet(2005), 26-27.

58) Ellul(2004d), 297.

59) Troude-Chastenet(2005), 27-28.

제들에 대한 해석과 분석의 틀로서 엘룰의 사상을 적용해 볼 수 있다.

3.2. 의료 사고에 대한 엘룰적인 해석 도구를 통한 분석

트루드 샤스트네는 2010년에 벌어지기 시작한 ‘메디아토르(Médiator) 사건’을 엘룰적인 해석 도구를 통해 분석하면서, 이해관계의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에서의 결정과 책임이라는 더 일반적인 문제가 제기된다고 밝힌다. ‘메디아토르 사건’은 프랑스 제약회사 세르비에(Servier)가 1976년부터 2009년까지 ‘메디아토르’라는 이름으로 시중 판매한 중독성 약물 ‘벤플로렉스’(benfluorex)의 복용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과 그 가족이 제기한 소송 사건을 가리킨다. 호흡기 전문의 이렌느 프라송(Irène Frachon)이 그 약물의 위험성을 밝히고 고발하기 위한 자신의 투쟁을 그린 『메디아토르 150그램, 몇 사람이나 죽었는가? *Médiator 150g : combien de morts?*』라는 책을 2010년에 펴냄으로써, 그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 약품의 판매가 중지된 2009년 한 해에만 프랑스에서 30만 명이 그 약품의 처방을 받았고, 2011년 ‘프랑스 약품 안전 보건 기구’의 공식 서류에 따르면 모두 합쳐 약 500만 명의 환자가 그 약품에 노출되었다.⁶⁰⁾

물론, 트루드 샤스트네는 제약회사의 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제품을 평가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회사의 로비 능력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그는 보건당국 책임자들과 세르비에 제약회사 사이의 금전상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 그 사건을 설명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님을 강조한다. 그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점은 다음과 같다. 즉, 약품의 환불 정책과 시중 판매 허가에 대한 책임이 관련 장관들에게 있는데도, 통치상의 범죄행위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인 책임을 형사상의 책임으로 대체함으로써, 정치적 무책임이 제도화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약품 관리 기관의 기능장애라는 문제를 통해 공공 위생 체계 전체를 넘어 소위 민주주의 체제와도 관련된 몇 가지 기본 질문들이 제기된다. 즉, 공공 정책은 어떻게 누구에 의해 결정되고, 실제로 누가 결정들을 내리며, 누가 국민 앞에서 그 결정들에 대한 책임을 맡아야 하고, 실제로 누가 국가의 꼭대기에서 통치하는가는 질문이다. 결국, 엘룰적인 접근과 관점을 통해 다음 같은 점이 드러난다. 즉, 이른바 ‘복합 사회’에서 취급해야 할 서류들의 양과 전문성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장관들은 다양한 부문의 고위 관료와 기술자와 전문가에 의해 사전에 이루어진 선택들을 승인하고 결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고위 관료와 기술자와 전문가는 중앙행정부와 내각 한가운데서 선거가 아닌 자신들의 전문화된 지식과 능력으로부터 자신들의 적법성을 이끌어낸다. 더욱이, 그들은 과학 기술적인 절대적 필요성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성격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모든 형태의 통제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메디아토르 사건’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오래전부터 사라졌다.”⁶¹⁾는 엘룰의 지적과 상응한다.⁶²⁾

이와 같이, 정치가는 기술전문가에 의해 사전에 내려진 결정들을 집행할 수밖에 없고, 정

60) Troude-Chastenet(2014a), 21-23.

61) Ellul(2004d), 320.

62) Troude-Chastenet(2014a), 23, 26-28.

치적 행위는 기술전문가에 의해 엄밀히 경계가 설정된 범위 속에 포함된다. 그렇지만 엘릴의 입장은 진정한 정치적 결정이 존재할 수 있음을 부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결정을 짓누르는 결정요인들이 늘어남을 드러내는 것이다. 트루드 샤프스트네는 엘릴이 흔히 ‘예언자’로 규정되기는 하지만, 엘릴이 자신에게 부과한 임무를 생각해 보면 ‘경보를 발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고 밝힌다. 즉, 엘릴은 기술의 신성화를 통해 야기된 인간의 자유를 짓누르는 위협들을 예견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경고한다. 자유를 쟁취하거나 혹은 보존하려면 인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협들을 자각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엘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적어도 그러하다는 것이다.⁶³⁾

3.3. 금융 위기에 대한 엘릴적인 분석의 적용

알방 카이메르 뒤페라쥬(Alban Caillemer du Ferrage)와 브뤼노 지자르(Bruno Gizard)는 금융 거품의 형성 가운데 작동하는 메커니즘, 특히 2007년에 촉발된 전 세계적 금융 위기의 원인들을 규명하려고 애쓰면서, 금융 분석가들이 일반적으로 무시하는 기술적인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먼저, 그들은 1988년에 나온 『기술담론의 허세 *Le Bluff technologique*』에서 엘릴이 제시한 2000년의 미래 사회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네 가지 중요한 현상 혹은 위기를 인용한다. 즉, 핵전쟁 가능성, 제3세계의 일반화된 반란 가능성, 실업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가능성, 부채 누적의 결과로 서구 세계의 일반화된 금융 파산 가능성이다.⁶⁴⁾ 그중에서 개인 부채와 공공 부채의 누적에서 비롯되는 심각한 파열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금융 거품의 형성 및 금융 위기 원인들의 형성 가운데 작동하는 기제들을 규명하는데 엘릴의 사상이 기여한 바가 분명히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엘릴의 사상은 그 원인들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서, 금융 시장 작동의 결함들을 교정한다고 흔히 여겨지는 행정명령 조치들에 대한 비판적인 도구 구실을 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2007년에 촉발된 금융 위기에서 기술의 비중을 이와 같이 드러내려고 한 어떠한 연구도 이전에는 없었다고 밝힌다. 기술, 특히 정보처리기술은 금융 시장 변화의 결정적인 요소였고 지금도 그런 요소로 남아 있다. 그런데, 엘릴이 끊임없이 확인했듯이, 그 요소는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라는 반드시 양면적인 특성을 띤다. 그래서 그들은 긍정적인 결과들과 부정적인 결과들을 구분하고 나서, 금융 기술화의 결과들을 설명하기 위해 엘릴적인 분석으로부터 착상을 얻는다. 더 나아가, 그들은 기술이 차지한 과도한 위상을 저지하는 방법과 수단들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엘릴이 제시한 분석 도구와 고찰을 그 실마리로 활용한다.⁶⁵⁾

뒤페라쥬와 지자르는 기술의 영향 아래에 있는 금융 시장을 분석하면서, 최근 수십 년간의 변화로서 기술에 의해 완전히 변모된 시장 조직, 파생상품의 발전, 파생상품의 고도의 복잡성 증대를 제시한다. 여기서, 금융 시장 조직에 영향을 미친 기술이라는 요인의 긍정적인

63) Troude-Chastenet(2014a), 37-38, 43.

64) Ellul(2004a), 451.

65) Gizard·Du Ferrage(2014), 44-46.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기술을 통해 국지화라는 제약을 넘어선 금융 시장에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 투자자들의 점점 더 적극적인 등장이 중시되기 때문에, 금융 시장의 전산화 및 그에 따른 연속적인 금융 시장 조직의 변화가 초래된다. 그런데, 이를 통해 외국 투자자들의 등장이 촉진되고 금융거래는 세계화된다. 파생상품은 그런 세계화에서 생겨난 위험 관리의 본질적이고 유일한 도구이다. 하지만 파생상품의 비약적 발전은 금융 시장의 유동성과 발전에 근본적으로 기여하고, 차입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한다. 또한 그러한 발전은 적극적 관리 기술과 소극적 관리 기술을 완성하는데 기여한다. 국가는 아주 불안정한 수익률 곡선에 근거한 납세자들의 채무를 역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런 기술들에 의뢰할 수밖에 없다.⁶⁶⁾

반면에, 뒤페라주와 지자르는 금융 시장 조직에서의 기술의 부정적인 결과를 다음 같이 제시한다. 첫째, 무한한 힘의 경쟁이다. 컴퓨터가 지닌 힘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 조직이 지닌 힘은 효율성의 증가에 대한 집착에서 늘 생겨난다. 일례로, 그것은 수학자와 연구자를 채용하여 가능한 한 정교해진 체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은행들이 몰두해서 벌이는 가차 없는 경쟁이다. 둘째, 위험의 증가이다. 우선, 결합이 있는 체계를 대체할 수 있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백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만 보호할 수 있는 정보처리기술 도구 자체의 장애 위험이다. 물론, 그런 위험이 금융 시장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 시장에는 두 가지 종류의 특유한 위험이 있다. 첫 번째 위험은 인간적인 오류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자신의 단말기에 매수 주문을 입력할 때 저지르는 오류이다. 투자자가 자신의 오류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주문은 처리되고 이를 통해 끔찍한 결과가 생겨날 수 있다. 두 번째 위험은 주문의 자동 처리를 맡는 ‘알고리즘’(algorithm) 개념의 오류인데, 아마도 알고리즘 개념의 오류는 금융 시장에서 가장 눈길을 끈 사건⁶⁷⁾의 원인이다. 그 두 가지 경우에서,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든, 투자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든, 기계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는 기술에 대한 신성화와 금융 시장의 비인간화에서 절정에 달한다. 이와 같이, 부화뇌동이 일반화된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금융 시장에서 기술이라는 도구의 지배는 특히 위험한 것으로 드러난다.⁶⁸⁾

뒤페라주와 지자르는 금융시장에서 기술이 차지한 증대하는 지배적 위상을 엘월의 기술사상이라는 선별수단을 통해 분석하면서, 확증된 주요 사실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금융 시장에 대한 기술의 지배력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키워나간다는 것이다. 우선, 이런 ‘자가 양육’⁶⁹⁾ 현상은 금융 시장의 작동과 관련하여 다음 같이 나타난다. 즉, 기술이라는 도구의 발전을 통해 ‘트랜잭션처리시스템’⁷⁰⁾의 발달이 초래되는데, ‘트랜잭션처리시스템’은

66) Gizard·Du Ferrage(2014), 46-54.

67) 2010년 5월 6일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리킨다. 알고리즘 개념의 장애 때문에 41억 달러에 해당하는 주문이 20여 초 만에 이루어지자, 이 주문에 의해 유발된 다른 주문들의 자동 처리 과정을 통해 몇 초 만에 주가지수의 10퍼센트가 폭락하고, 주문의 자동 처리의 영향을 받아 주가지수가 반등하기도 전에 1조 달러의 주식 시가 총액이 증발해 버린 사건이다.

68) Gizard·Du Ferrage(2014), 54-56.

69) ‘자가 양육’(l’auto-alimentation). 엘월이 기술 혹은 기술 체계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제시한 ‘자가 증식’(l’auto-accroissement)이라는 개념과 밀접히 연관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70) ‘트랜잭션처리시스템’. 거래 데이터가 발생할 때마다 단말장치에서 입력하고, 처리를 하여 그 결과

기술이라는 도구에 부여해야 할 새로운 차원을 반드시 필요하게 만든다. 다음으로, ‘자가 양육’은 그 현상의 책임자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결정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자가 증식’ 혹은 ‘자가 양육’은 기술적인 발전에서 생겨난 금융 시장에 의해 점진적으로 얻어진 자율성을 통해 나타난다.⁷¹⁾

둘째, 금융 시장은 사회적 기능과 멀어진다는 것이다. 주식시장과 금융상품 변화의 공통점은 각각 자체의 목적을 자체 안에 마침내 형성한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그 자체로 주식 시장은 매매 실행이라는 유일한 기술적 특성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윤을 주도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는 타당한 매입 판단이나 혹은 매도 판단 가운데서 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파생상품도 위기관리 도구의 위치에서 위험 생성 수단의 위치로 넘어간다. 또한 어떤 금융수단들은 경제의 자금조달 및 자금조달 당사자들의 사회적 기능에 심각한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업자의 사회적 기능은 경제에 유동성을 주입하는 것으로부터 ‘신용 재료’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변해 갔다. 그런데, 그 ‘신용 재료’는 자신들의 유동자산의 이익을 위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 곁에 있는 투자 금융수단에 내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2007년과 2010년의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은 우선 과도한 개인 부채이고, 다음으로 과도한 공공 부채라고 할 수 있다.⁷²⁾

셋째, 금융정책은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정치와 기술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반드시 패배하는 것은 정치이다.”⁷³⁾라는 엘룰의 언급이 정확하다면, 온갖 지위의 정치인 모두가 기술적 진보에 계속 집착하는 것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다. 엘룰이 그러한 견해를 표시한 시기보다 더 명백하게 2007년부터 전개되는 이중적인 금융 위기를 통해, 경제계와 금융계에 대한 기술의 지배를 통해 생겨난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정치의 무력함이 드러난다. 물론, 확인된 모든 일탈이 그런 현상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는 없다. 즉, 통제되지 않는 공공 부채 증가의 책임을 기술에만 전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기술에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금융상품의 고도의 복잡성 증대를 통해, 정치는 지금 진행 중인 일탈들을 간파할 능력을 상실하고, 일탈들의 위험을 깨는 능력을 상실하며, 일탈들의 해로운 결과들을 제한할 능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그 모든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는 상황을 통제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정치 책임자들이 부딪치는 첫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런 어려움 외에도, 체계 전체가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나머지, 그 분야에서 사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시도는 엄청나게 큰 작업이 되고 만다는 어려움도 있다. 그런 시도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운 것은 경제적 쟁점들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계의 무게중심이 점차 아시아를 향해 옮겨지고 있으나, 금융 시장이 동구와 서구 사이에뿐만 아니라 서구 국가들 사이에 아주 격렬한 경쟁 무대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심각한 점은 정치인들이 금융 위기에서 발견했다고 여기는 해답 자체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 일탈과 관계

를 되돌려주는 방법에 의한 데이터 처리 방식을 가리킨다.

71) Gizard·Du Ferrage(2014), 59-61.

72) Gizard·Du Ferrage(2014), 61-62.

73) Ellul(2012), 146.

된다는 것이다.⁷⁴⁾

뒤페라쥬와 지자르는 그렇게 실추된 금융 시장의 구조에서 따라가야 할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는 금융 시장에서 기술이 차지한 역할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다. 첫째, 금융 시장에서의 기술의 역할에 대한 개인적 인식을 통해, 금융 시장의 당사자, 특히 금융기업과 금융 중개인, 이 기관들의 경영진이나 혹은 협력자는 기술이라는 ‘공공재’에 순응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철저하게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금융상품과 금융기술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흔히 그 질문에 이미 대답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모든 것은 개인적 인식을 거쳐 지나가지만 집단적 방식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⁷⁵⁾는 엘룰의 언급처럼, 이 개인적 인식은 집단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 위기는 사회 구조를 계속 격렬하게 뒤흔들고 많은 사람을 프롤레타리아로 만든다. 그런 금융 위기에 대해 무관심한 채로 있을 수 없기에, 우리는 방침을 결정하고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⁷⁶⁾

3.4. 비즈니스 윤리에 대한 엘룰적인 분석의 적용

데이비드 길은 엘룰이 20세기 후반에 글을 썼지만 그의 메시지는 21세기 초반에도 한층 더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업의 경영진이 그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면 좋을 것이라고 밝힌다. 특히, 그는 엘룰의 저작이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즈니스 윤리라고 하면서, 오늘날 미국에서의 대부분의 경우 시간 낭비나 도덕적 구실이나 환상일 따름인 비즈니스 윤리는 타당성이 없는 쓸모없고 따분한 활동이라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그는 만일 비즈니스 윤리가 엘룰이 제기한 세 가지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할 때, 우리 시대에 비즈니스 윤리는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되찾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비즈니스의 대상과 목적을 환각에 사로잡힌 맹목적인 부의 추구에 한정하는 문제이다. 둘째, 비즈니스의 조직과 시행을 기술이라는 철두철미한 규율에 완전히 종속시키는 문제이다. 셋째, 비즈니스 요원이 노동의 필연적인 특성과 거기서 비롯되는 자유의 부채를 감수하는 문제이다. 그 세 가지 문제를 간략히 표현하면 돈에 대한 숭배, 기술에 대한 예속, 필연성에 지배된 노동이다.⁷⁷⁾

첫째, 돈에 대한 숭배와 관련하여, 데이비드 길은 오늘날 기업의 목적과 우선순위에서 돈이 다른 모든 동기를 넘어 지배적 요인이 되는 데 있어 두 가지 결정적인 단계를 제시한다. 첫 번째 단계는 최근 몇십 년간 시장 체제 유지 지지자들, 곧 신자본주의자들은 “탐욕은 좋은 것이다”라고 선언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고방식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견해이다. 즉, 각자가 금전적 이득과 재산 같은 자기 자신의 개인 이익

74) Gizard·Du Ferrage(2014), 63-64.

75) Ellul(1998), 24 ; Ellul(2014), 133-147.

76) Gizard·Du Ferrage(2014), 65-68.

77) Gill(2014), 113-114.

을 가능한 한 아득바득 추구하는 것이 자신과 경제와 세상을 위해 좋다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 지배하는 정신은 자신을 위해 돈을 사랑하는 것인데, 비즈니스 세계의 경영자나 혹은 노동자에게는 단지 돈만이 중요할 따름이다. 두 번째 단계는 금융 서비스 산업의 증대이다. 오늘날 거대한 비즈니스와 산업은 상품이나 혹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판매하는 것들이 더는 아니다. 오늘날 가장 큰 보수를 받는 것은 은행업자나 투자 자산 관리자인데, 그들은 이율, 부채, 위험, 투자, 보험에 편승하여 투자를 한다. 오늘날 비즈니스 세계에서 매우 엄청난 액수의 돈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활동으로 간주되는 나머지, 그 활동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개인 이익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는 듯이 보인다. 그렇지만 얼마 전 그랬듯이, 은행이나 투자회사가 파산할 때 경영자들은 보너스만을 챙기기에 급급했다.⁷⁸⁾

데이비드 길은 그 체제가 다를지라도 어떤 국가에서든 돈의 승리를 예견한 엘룰의 분석을 이제 돈이 전부가 된 오늘날의 현상에 적용한다. 엘룰에 따르면⁷⁹⁾, 자본주의는 개인적인 삶과 집단적인 삶 전체를 점차 돈에 종속시키는데, ‘소유’를 위해 ‘존재’가 사라진 것이 자본주의 체제의 결과 중 하나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차이는 거의 중요성이 없을 정도로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중국에서의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미국이나 혹은 프랑스에서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돈은 사람들의 경외심과 숭배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의 관심과 욕구의 중심을 차지하며, 사람들에게 의미와 가치의 원천 구실을 한다. 이와 같이, 돈은 사람들의 삶에서 ‘맘몬’이라는 신의 속성들을 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돈에 대해 경고하는데, 돈은 영적 권세로서 활동한다는 것이다. 돈에 대한 사랑이 비즈니스와 직업을 진작시키는 것이 될 때, 돈은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 특히, 세상만사와 모든 관계를 돈으로 환산하고 상품화하는 것은 거기에 연루된 모든 사람의 인간성을 반드시 말살하고, 단순히 돈으로만 측정될 수 없는 가치와 현실에 대한 우리의 판단력을 마비시킨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단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맘몬 숭배의 공동체와 문화 속에서 노동과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맞선 개인적인 결정과 행위가 더 넓은 시각에서는 완전히 쓸모없는 듯이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맘몬을 섬기기보다는 이웃과 친구들과 더불어 그들의 삶에서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을 키워 나가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로 비즈니스를 진작시키는 목적으로 삼는다면, 돈은 자체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⁸⁰⁾

둘째, 기술에 대한 예측과 관련하여, 데이비드 길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기술의 실제 역할에 대한 거의 완전한 무관심이 발견된다고 하면서, 기술이 우리가 결정한 방식으로 우리의 목표와 실행을 돕는 중립적인 도구들의 전체라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에서의 기술에 대한 틀에 박힌 관점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엘룰에 따르면⁸¹⁾, 기술은 주어진 발전 단계에서 절대적 효율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된 방법과 수단들의 총체이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도 기술은 비즈니스에서 소용되는 도구들의 단순한 전체가 아니며, 도구들은 오늘날의 상업적 실

78) Gill(2014), 115-117.

79) Ellul(1979), 20-28.

80) Gill(2014), 117-120.

81) Ellul(2012), 163-175.

행을 실제로 이끄는 전체에 통합되었다. 특히, 오늘날 인간에게 기술은 단순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고,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행동 이유가 되고, 인간의 참여를 요구한다. 기술은 인간 활동의 다른 영역에 단순히 추가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만물에 퍼져 나가면서 환경을 이루고 스스로 확장하며 보편화되고 자가 증식한다. 기술이 지배하는 곳에는 기술적 가치들도 지배한다. 기술에 의해 전달되는 윤리적 가치들은 ‘정상 상태’⁸²⁾, 성공, 노동, 끝없는 성장, 인위성, 효율성과 효율, 힘과 속도, 표준화 등이다. 기술 사회에서 그 기술적 가치들은 인간의 결정 기준과 활동 기준과 미덕이 되므로, 기술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란 사회에 잘 적응하여 성공을 통해 보상을 받는 정상 상태의 근면한 사람이다. 데이비드 길은 그런 기술적 가치들이 수많은 비즈니스 활동과 비즈니스 실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가치들이 최소한의 제한도 없이, 또한 자체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의식도 없이 적용될 때, 그 가치들의 지배는 공포의 지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그는 오늘날 온갖 비즈니스 실행에서 드러나는 기술적 가치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가능해진 것은, 어느 누구보다 더 엘월이 기술적 가치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 올바른 비즈니스 윤리에 기여한 덕분이라고 평가한다.⁸³⁾

셋째, 필연성에 지배된 노동과 관련하여, 데이비드 길은 엘월이 비즈니스 윤리에서 지속적이고 비판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분야가 노동의 의미 부재 및 노동의 필연성과 관련되는 분야라고 밝힌다. 엘월에 따르면⁸⁴⁾, 역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노동은 생존의 필연성에 의해 강요된 힘든 고역이다. 역사를 통해 심지어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에서의 대다수 사람에게, 사람들이 택하는 노동의 본질을 규정하고 노동의 부정적인 특성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필연성이다. 노동을 자유의 수단이나 혹은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거짓이며, 노동은 단지 필연적이다. 따라서 엘월은 마르크스주의자이든 자본주의자이든 간에 노동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거부한다. 노동은 경제적 동향이나 혹은 정치적 동향 속으로 우리를 더욱 순응시키거나 혹은 통합시키기 위한 단순한 도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학적으로도 대다수의 사람에게 노동은 자유나 고귀한 의미의 문제라기보다는 필연성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이다. 엘월은 신학적으로 인간의 노동이 창조가 아닌 타락에 그 뿌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엘월에게 노동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인간의 창조나 혹은 공동 창조자로서의 인간의 의무에 그 근거를 두지 않는다.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에덴동산을 가꾸며 번성하고 생육하는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권한은 ‘노동’이라고 불리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그 권한은 손상되지 않은 완벽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를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땅과 타인으로부터 분리된 타락한 세상에서 요구된 것이 바로 인간의 노동이다. 결국, 노동은 근본적으로 고역이고 필연성에 속한다.⁸⁵⁾

82) ‘정상 상태’(la normalité)가 기술적 가치가 되는 것은, 기술 사회에서 인간은 ‘잘’ 행동하도록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행동하도록, 다시 말해 기술 사회에 적응하도록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기술 사회에 잘못 적응하는 것은 하나의 죄악이다. 엘월은 “오늘날 교육의 주된 목표는 이 기술 사회에 잘 적응된 젊은이들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Ellul(2013), 215-216

83) Gill(2014), 120-125.

84) Ellul(2013), 79-80, 218-219.

데이비드 길은 노동에 대한 엘릴의 그런 도전적인 견해가 특히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은, 그 견해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동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유와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전받을 때라고 밝힌다. 그래서 데이비드 길은 사람들이 노동 세계의 필연성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며, 자유와 존엄을 위해 그런 필연성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야 함을 강조한다. 엘릴이 비즈니스 윤리에 제시한 도전은 노동 현장에서의 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이 의미를 갖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사람들이 노동에서 개인적 발전과 창의성의 계기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기술적 가치들과 다른 가치들이 노동에 뚜렷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고, 인간관계가 건전한 방식으로 노동에서 맺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⁸⁶⁾ 따라서 노동 문제에 대한 엘릴의 판단이 적절한 것은, 노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험과 연관이 있는 것에 가차 없이 현실적이고 비판적으로 남아 있으라는 그의 요구에서 기인한다. 물론, 엘릴은 세상에서의 대부분 노동자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지만, 이런 도전은 자유와 필연성을 대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세속적인 노동의 세계에 ‘전적 타자’를 개입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히, 엘릴은 인간 존재들이 그 자체로서 서로 만날 수 있게 되는 틀을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우리가 노동 현장을 비(非)제도화하고 비구조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더욱이, 엘릴은 인간의 노동을 통해 기쁨이 생겨나고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일이 생겨날 때, 그것은 예외적인 사건으로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임을 인정한다. 이와 같이, 결국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노동에서 뜻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데이비드 길은 “일단 모든 것이 패배한 듯이 보일 때에만이, 또한 담장들이 밀폐되고 어떠한 출구도 없을 때만이 진정한 소망은 시작한다”⁸⁷⁾는 엘릴의 말을 인용하면서, 노동과 비즈니스에서 필연성이 지배하는 듯 하고, 기술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지으며, 돈이 숭배의 대상일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로 이 각각의 지점에서 저항해야 한다고 역설한다.⁸⁸⁾

3.5. 기술적 진보에 대한 엘릴적인 사고의 적용

브라질 법학자 호르헤 바리엔토스 파라(Jorge Barrientos-Parra)는 유전공학의 일탈, 실험실에서의 슈퍼바이러스 생성, ‘밀실 생명공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런 기고만장한 연구에 대해 최소한의 제한도 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동기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기술 문명의 근본적인 법칙이 거기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는 엘릴의 사고에 근거하여 21세기 초의 몇몇 불안한 사건들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애쓰면서 기술적 진보의 영향력을 고찰한다. 하지만 주제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는 기술적 진보의 양면성이라는 문제로서

85) Gill(2014), 125-127.

86) 데이비드 길은 ‘사우스웨스트 항공’(Southwest Airlines)이나 ‘코스트코’(Costco) 같은 어떤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보다 그런 가치들을 더 추구하고 실현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87) Ellul(2004c), 192.

88) Gill(2014), 127-132.

기술의 자율성, 인과적 발전, 기술적 진보의 궁극목적 부재와 같은 엘릴이 제기한 몇 가지 문제만 살펴보는데 한정한다.⁸⁹⁾

바리엔토스 파라는 21세기 초에 벌어진 몇몇 불안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2002년 뉴욕 주립대학의 연구팀은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합성하는데 성공하고, 2003년에는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가 다시 만들어진다. 그런데, 2007년 캐나다에 있는 ‘이티시 그룹’⁹⁰⁾의 ‘극한 생명공학’(Extreme Genetic Engineering) 보고서에 따르면, 천연두 바이러스를 합성하는데 이론적으로 2주도 걸리지 않고 경주용 자동차 한 대 가격의 비용이 든다. 그런데, 천연두, 스페인 독감, 소아마비는 과거에 인류가 고통과 죽음의 심한 대가를 치렀고 제어하기를 바랐던 3대 자연 재앙이지만, 천연두는 여전히 창궐하고 있으며, 독감 바이러스의 변화는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박멸하기를 원했던 그 바이러스들이 유전공학을 통해 다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바이러스들을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백신에 저항하게 만드는 것이 완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런 실험실에서 일하는 기술전문가나 혹은 과학자에 의해 그 바이러스들이 자연 속에 퍼트러지는 사고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테러리스트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또한 디엔에이(DNA)도 사기업에서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는데, 디엔에이 합성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전문 능력 수준은 별로 높지 않다. 그리고 어떤 신문들에서는 ‘밀실 생명공학’이 생겨난 것이 보도되기도 하는데, 가까운 장래에 사람들이 집에서 인공 유기체를 만드는 일에 빠져들 수도 있다. 최근에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 메디컬 센터’ 연구팀은 돼지 독감과 조류 독감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를 기초로 슈퍼바이러스를 만들어낸다. 그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무척 강하고 치명적이어서, 수백만 명에게 피해를 입히는 공공 재난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어떤 전문가들은 그 바이러스가 생물학 무기를 만드는데 소용될 수 있다고 두려워한다. 그런 이유로, 미국의 ‘생물보안 국립과학 위원회’는 그런 연구의 전반적인 결론만 발표하기를 권고한다. 연구의 방법론이나 세부사항이 발표되면 그런 실험이 반복될 수 있고, 그 바이러스들이 의도적으로나 혹은 사고로 자연 속에 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권고는 논문의 완전한 발표를 바라는 이들과 이에 반대하는 이들 사이에 논쟁의 빌미가 된다. 어쨌든, 사람들 사이에 전염될 수 있는 H5N1 슈퍼바이러스의 발달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⁹¹⁾

이어서 바리엔토스 파라는 2011년 7월 25일 자 영국 신문에 실린 기사를 인용하면서 다른 사건을 소개한다. 즉, 2008년 영국에서 현재의 ‘인간생식배아 법안’이 통과된 이후, 배아 생식과 배아 연구에 대한 의료 지원을 맡고 있는 영국 최고 기관의 정식 허가를 받아, 155개의 ‘인간 동물’⁹²⁾ 잡종 배아의 생산이 이루어진다. 달리 말하면, 동물의 난자와 인간의 정자로부터 잡종을 생산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세포가 미리 적출된 동물의 난자에 이식되는

89) Barrientos-Parra(2014), 150.

90) ‘이티시 그룹’(ETC Group). 문화적이고 생태적인 다양성과 인권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신장하는데 전념하는 국제 조직으로서, 공식 명칭은 ‘Action Group on Erosion, Technology and Concentration’이다.

91) Barrientos-Parra(2014), 151-152.

92) ‘인간 동물’(l’homme-animal). 동물이나 혹은 인간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간을 연상시키는 피조물을 가리킨다.

경우 ‘세포질체잡종’(細胞質體雜種)이 되고, 인간이나 동물의 배아나 혹은 세포가 서로 융합되는 경우 ‘키메라’⁹³⁾가 된다. 그 때문에, 바리엔토스 파라는 그런 종류의 연구, 특히 영장류의 뇌 속에 이식된 인간의 줄기세포 실험에는 더 주의 깊은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면서, 그런 연구를 통해 제기되는 일반적인 몇 가지 질문을 열거한다. 즉, “어떤 방향으로, 어디까지 우리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진보의 길을 이끌어가야 하는가?”, “인간의 비인간화 혹은 동물의 인간화인가?”, “기술적 진보의 궁극목적은 무엇인가?”, “기술적 진보가 인류의 행복을 이루어내는 것이라면, 왜 기술적 진보는 그토록 많은 폭력과 죽음의 도구의 빌미가 되는가?”라는 질문이다. 그는 그 질문들에 답하고 앞에서 언급된 몇 가지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 엘룰적인 사고의 주장들을 작업가설로 삼는다.⁹⁴⁾

바리엔토스 파라는 현재의 그 사건들과 현대의 복잡한 현실을 이루는 많은 다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기술의 단일성’과 ‘기술의 양면성’이라는 엘룰의 두 가지 개념을 취한다. 우선, 기술에 내재된 특성으로서 ‘단일성’이란, 기술로부터 이러저러한 요소를 분리할 수 없으며, 기술의 어떤 요소들은 유지될 수 있고 다른 어떤 요소들은 제외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술의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⁹⁵⁾ 엘룰에 따르면⁹⁶⁾, 각 부분이 다른 부분을 떠받치고 강화하면서, 또한 어떤 요소를 제거할 수 없이 연계된 현상을 이루면서, 기술들 각각의 작동 방식들은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도록 서로 결합한다. 따라서 기술의 나쁜 면을 없애고 좋은 면을 간직하려는 희망은 환상에 불과하며, 이는 기술 현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술의 양면성’이란 주변 현실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의 외적 특성이다. 엘룰에 따르면⁹⁷⁾, 기술의 완전히 기본적인 측면에서 ‘기술의 양면성’은 기술에는 좋은 결과나 혹은 나쁜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달리 말하면, 기술의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든 간에, 기술은 상당수의 긍정적인 결과나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그 자체로 포함한다. 엘룰의 견해로는 비록 그 의도가 인간적이더라도 모든 산업과 기술에는 군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⁹⁸⁾, 인간의 선한 의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사회는 기술의 필연성을 따라가므로, 기술이 사용될 때 거기에는 개인의 의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⁹⁹⁾

바리엔토스 파라는 우리에게 가장 충격을 주는 것은 기술 현상에 의해 모든 도덕적 틀과 사법적 틀이 뒤집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사회와 인간에 대한 기술의 영향력이 너무나 막대한 나머지 종교적이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이고 사법적인 표준은 기술을 관리하기에는 무능한 것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천연두, 독감, 소아마비 바이러스의 합성 같은 ‘과학적 만용’을 생각하면, 그런 고삐 풀린 비합리적 상황에 어떻게 이르게 된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

93) ‘키메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자의 머리, 양의 몸, 용의 꼬리를 가진 괴물을 가리킨다.

94) Barrientos-Parra(2014), 153-154.

95) Ellul(2008), 88.

96) Ellul(2008), 102.

97) Ellul(2004a), 89.

98) Ellul(2008), 101.

99) Barrientos-Parra(2014), 154-155.

기된다. 그 뿐 아니라, “기술의 궁극목적은 인간의 행복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엘룰의 놀라운 대답은 기술은 궁극 목적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엘룰에 따르면¹⁰⁰⁾, 기술은 표면상의 목표나 혹은 암묵적인 목표를 추구하지 않고, 순전히 인과적인 방식으로 변하는데, 앞선 기술적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적 요소들이 제시된다. 인간은 미래에 대해 판단력이 마비된 상황 속에 있고, 완전한 인과관계의 영역 속에 있다. 또한 인간의 단편적인 행동들 사이에 또한 인간의 모순들 사이에 연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술의 자가 증식이다. 조정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더는 인간이 아니라, 기술의 내적 범칙들이다. 즉, 일련의 수단을 장악하는 것은 더는 손이 아니라 원인들을 종합하는 두뇌이다. 또한 기술에 내재된 단일성만이 수단과 인간들의 행동 사이에 일관성을 보장해준다. 따라서 바리엔토스 파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 사건들을 파악하고 현 세상의 합리성을 이해하려면 기술의 합리성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해결책을 찾기 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관례적인 논리적 사고와 결별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로 엘룰이라고 밝힌다.¹⁰¹⁾

바리엔토스 파라는 엘룰이 정립한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한다. 첫째, 이전의 연구들이 기술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곳에서만 기술적 연구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기술적 진보는 이미 존재하던 기술적 결과들에 따라, 그리고 이 기술적 결과들 때문에 이루어진다. 또한 기술적 진보는 아이디어, 기계, 조직, 재정수입, 정보, 수공(手工) 능력이나 혹은 지적 능력 전체의 압력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기술의 진보를 야기한다. 둘째, 획득된 모든 요소는 장래의 연구에서 사용된다. 엘룰에 따르면¹⁰²⁾, 아무 것도 기술 분야에서 사라지지 않고, 어떤 방식들은 한 동안은 장래가 없는 듯이 보일 수 있지만, 기술적 변화를 통해 그 방식들은 적용되고 경쟁 상태에 다시 놓인다. 그런 방식으로 기술전문가는 예전의 기술적 진보를 통해 자신의 수중에 놓인 것과 더불어 활동한다. 즉, 앞선 기술은 사실상 뒤따르는 기술의 원인이 된다. 바리엔토스 파라는 과학자나 혹은 기술전문가는 가능한 한 최선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사용해야 하는 어떤 방법이나 도구 앞에 놓인다고 하면서, 이런 이용을 통해 존재하는 모든 요소의 결합이 요구되며, 혁신은 단지 사용가능한 수단들의 결합이라고 주장한다.¹⁰³⁾

4. 결론

올리비에 아벨(Olivier Abel)은 몇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엘룰을 평가한다. 첫째, 엘룰은 힘과 허세로 물든 우리 사회를 연구하면서, 50여 년 전부터 기술 체계와 기술 체계의 민주주의적 가면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기 위해 준엄한 비판을 만들어낸다. 둘째, 엘룰은 기술적 진보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맹신과 결별하면서, 기술적 진보의 정치

100) Ellul(2008), 87-90.

101) Barrientos-Parra(2014), 155-156.

102) Ellul(2012), 288.

103) Barrientos-Parra(2014), 156-157.

적 환상과 생태학적 폐해를 고발한다. 셋째, 엘웰은 전도서와 복음서의 해석자로서, 개신교 자체에 맞서는 개신교도로서, ‘비무력’(非武力)의 사도로서, 자신의 사상 전체의 방향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유일한 계명으로 바꾼다. 그 모든 것을 통해 개인적인 자유의 윤리가 주어지는데, 이 자유의 윤리는 우리 시대의 흐트러진 개인주의와 타협하지도 않고, 인간의 업적에 대한 환상을 갖지도 않는다.¹⁰⁴⁾

그러한 엘웰 사고의 핵심은 기술, 다시 말해 모든 분야에서의 절대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의 추구가 우리 현대 사회의 관건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술은 권세와 동일시되는 인격화되고 신격화된 기술이 되어 버린다. 특히, 엘웰은 기술 사회 속에 현대인을 통합하는데 절대 필요한 것으로서 선전을 묘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선전을 하나님의 말이 확산하는 데 장애물로 간주한다. 민주주의는 존속하기 위해 선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본래 선전은 민주주의를 부정한다. 모든 것은 정치적이지만 정치는 환상에 불과하다. 정치는 종교를 대체하고, 현대 국가는 신의 위치를 차지한다. 민중의 주권은 허구일 따름이고, 보통선거는 좋은 위정자들을 선별할 수 없고 위정자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현대 국가와 기술적인 이데올로기의 결합을 통해, 정치는 환상적이 될 뿐만 아니라 위험해진다. 그래서 엘웰은 국가라는 괴물 앞에서 개인적 저항의 힘들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와 같은 엘웰의 방법론과 연구방식을 토대로 현시대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 및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해석과 분석의 틀로서 엘웰의 사상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의료 사고인 ‘메디아토르 사건’을 엘웰적인 해석 도구를 통해 분석하면, 이 사건이 이해관계의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민주주의에서의 결정과 책임이라는 일반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그 사건에 대한 엘웰적인 접근과 관점을 통해 다음 같은 점이 드러난다. 즉, 정치가는 기술 전문가에 의해 사전에 내려진 결정들을 집행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 행위는 기술 전문가에 의해 엄밀히 경계가 설정된 범위 속에 포함된다. 엘웰은 기술의 신성화를 통해 야기된 인간의 자유를 짓누르는 위협들을 예견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경고한다. 자유를 쟁취하거나 혹은 보존하려면 인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협들을 자각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 금융 위기의 원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엘웰적인 분석을 적용하면, 금융 분석가들이 일반적으로 무시하는 기술적인 요인들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즉, 금융 거품의 형성 및 금융 위기 원인들의 형성 가운데 작동하는 기체들을 규명하는데 엘웰의 사상이 기여한 바는 결정적이다. 기술, 특히 정보처리기술은 금융 시장 변화의 결정적 요소였고 지금도 그런 요소로 남아 있다. 그런데, 그 요소는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라는 양면적인 특성을 띤다.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들과 부정적인 결과들이 구분되고 나서, 금융 기술화의 결과들을 설명하기 위해 엘웰적인 분석이 적용된다. 더 나아가, 기술이 차지한 과도한 위상을 저지하는 방법과 수단들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는, 엘웰이 제시한 분석 도구와 고찰이 그 실마리로 활용된다. 금융 시장에서 기술이 차지한 증대하는 지배적 위상을 엘웰의 기술 사상이라는 선별수단을 통해 분석해보면, 세 가지 주요 사실이 나타난다. 첫째, 금융 시장에 대한 기술의 지배력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키워나간다는 것이다. 둘째, 금융시장은 사회적

104) Abel(1995), 509-510.

기능과 멀어진다는 것이다. 셋째, 금융정책은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실추된 금융 시장의 구조에서의 가능한 해결책은 이렇게 제시된다. 첫째, 금융 시장에서의 기술의 역할에 대한 개인적 인식을 통해, 금융 시장의 당사자, 특히 금융기업과 금융 중개인, 이 기관들의 경영진이나 혹은 협력자는 기술에 순응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철저하게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둘째, 그러한 개인적 인식은 집단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

비즈니스 윤리가 엘월이 제기한 세 가지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할 때, 우리 시대에 비즈니스 윤리는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되찾을 수도 있다. 그 세 가지 문제를 간략히 표현하면 돈에 대한 숭배, 기술에 대한 예속, 필연성에 지배된 노동이다. 첫째, 돈에 대한 숭배와 관련하여, 돈은 사람들의 경외심과 숭배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의 관심과 욕구의 중심을 차지하며, 사람들에게 의미와 가치의 원천 구실을 한다. 특히, 세상만사와 모든 관계를 돈으로 환산하고 상품화하는 것은 거기에 연루된 모든 사람의 인간성을 반드시 말살하고, 단순히 돈으로만 측정될 수 없는 가치와 현실에 대한 우리의 판단력을 마비시킨다. 따라서 맘몬을 섬기기보다는 이웃과 친구들과 더불어 그들의 삶에서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을 키워 나가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에 대한 예속과 관련하여, 기술은 오늘날 인간에게 단순한 중립적인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고,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행동 이유가 되고, 인간의 참여를 요구한다. 기술이 지배하는 기술 사회에서 기술에 의해 전달되는 ‘정상 상태’, 성공, 노동, 끝없는 성장, 인위성, 효율성과 효율, 힘과 속도, 표준화 등의 기술적 가치들은 인간의 결정 기준과 활동 기준과 미덕이 된다. 하지만 오늘날 온갖 비즈니스 실행에서 드러나는 기술적 가치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가능해진 것은, 어느 누구보다 더 엘월이 기술적 가치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 올바른 비즈니스 윤리에 기여한 덕분이다. 셋째, 필연성에 지배된 노동과 관련하여, 인간의 노동이 창조가 아닌 타락에 그 뿌리가 있기에, 인간이 하나님과 땅과 타인으로부터 분리된 타락한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된 것이 바로 노동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택하는 노동의 본질을 규정하고 노동의 부정적인 특성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필연성이며, 노동은 근본적으로 고역이고 생존의 문제이다. 노동에 대한 엘월의 그러한 견해가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은, 그 견해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동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유와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전받을 때이다. 따라서 엘월이 비즈니스 윤리에 제시한 도전은 노동 현장에서의 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이 의미를 갖고 소외되지 않고, 사람들이 노동에서 개인적 발전과 창의성의 계기를 발견하며, 인간관계가 건전한 방식으로 노동에서 맺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전공학의 일탈, 실험실에서의 슈퍼바이러스 생성, ‘밀실 생명공학’ 등과 같은 사건들과 관련하여, 그런 기술적 진보에 대해 엘월적인 사고를 적용해 볼 수 있고, 그 사건들을 해석하기 위해 엘월적인 사고들이 작업가설이 될 수 있다. 즉, 현재의 그 사건들과 현대의 복잡한 현실을 이루는 많은 다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기술의 단일성’과 ‘기술의 양면성’이라는 엘월의 두 가지 개념이 취해진다. 우선, 기술에 내재된 특성으로서 ‘단일성’이란, 기술로부터 이러저러한 요소를 분리할 수 없으며, 기술의 어떤 요소들은 유지될 수 있고 다른 어떤 요소들은 제외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술의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술의 양면성’이란 기술의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다. 사람들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간에, 기술은 상당수의 긍정적인 결과나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그 자체로 포함한다. 인간은 미래에 대해 판단력이 마비된 상황 속에 있고, 완전한 인과관계의 영역 속에 있으며, 조정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더는 인간이 아니라, 기술의 내적 법칙들이다. 따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 사건들을 파악하고 현 세상의 합리성을 이해하려면 기술의 합리성을 알아야 한다. 결국, 해결책을 찾기 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관례적인 논리적 사고와 결별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로 엘월이다.

트루드 샤프트네는 “엘월의 사상은 늘 현재의 관심사에 속하는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엘월의 사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¹⁰⁵⁾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트루드 샤프트네에 따르면¹⁰⁶⁾, 사실상 항구적으로 문제를 당연히 불러일으키는 엘월의 저작은 고착되지도 않고, 방부처리 되지도 않으며, 규범으로서 신성시되지도 않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변증법적인 엘월의 사상은 마르크스의 사상처럼 그 자체가 언제나 움직이는 세상의 반영이다. 따라서 ‘엘월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사상이나 행동에 모든 면에서 부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런 태도는 지적으로 메마를 뿐 아니라 엘월의 가르침과도 반대된다. 결국, 현대에서 ‘엘월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일어날 우리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사건들 및 현상들과 관련하여 엘월의 사상으로 부터 어떤 방법론과 해석 도구에 대한 착상을 얻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것들에 대해 엘월적인 방법론과 해석 도구를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그것들을 통해 생겨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엘월의 사상은 현 세상을 이해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충분히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상으로 남게 될 것이다.

* 본고는 미발표 논문이니 참고문헌으로 이용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5) Troude-Chastenet(2014b), 9.

106) Troude-Chastenet(2014b), 9.

참고문헌

- 유기환(2014). 『알베르 카뮈』, 서울: 살림출판사.
- 이상민(2019). “자크 엘룰의 신학 사상과 그 사상에 대한 평가”, 『신앙과 학문』 제24권 3호(2019), pp. 89-140.
- Ellul, J.(1973). *Éthique de la liberté, volume I*, Genève: Labor et Fides.
- _____.(1974). *Éthique de la liberté, volume II*, Genève: Labor et Fides.
- _____.(1979). *L'Homme et l'argent*, Lausanne: Presses Bibliques Universitaires.
- _____.(1981). *La Parole humiliée*, Paris: Éditions du Seuil.
- _____.(1984). *Éthique de la Liberté, volume III : «Les Combats de la liberté»*, Genève: Labor et Fides & Centurion.
- _____.(1998). *Anarchie et christianisme*, Paris: La Table Ronde.
- _____.(2003). *Sans feu ni lieu signification biblique de la Grande Ville*, Paris: La Table Ronde.
- _____.(2004a). *Le Bluff technologique*, Paris: Hachette.
- _____.(2004b). “Les Chrétiens et la guerre” in *Cahiers Jacques-Ellul, n°2(2004)*, Bordeaux: Association Internationale Jacques Ellul, 9-16.
- _____.(2004c). *L'Espérance oubliée*, Paris: La Table Ronde.
- _____.(2004d). *L'Illusion politique*, Paris: La Table Ronde.
- _____.(2006). *La Foi au prix du doute*, Paris: La Table Ronde.
- _____.(2008). *La Technique ou l'enjeu du siècle*. Paris: Economica.
- _____.(2012). *Le Système technicien*. Paris: Le Cherche Midi.
- _____.(2013). *Le Vouloir et le faire: Une critique théologique de la morale*, Paris: La Table Ronde.
- _____.(2014). *À contre-courant*, Paris: La Table Ronde.
- Abel O.(1995). “Ellul, Jacques(1912-1994)” in *Encyclopédie du protestantisme(1995)*, Genève: Les Éditions du Cerf, 509-510.
- Barrientos-Parra, J.(2014). “De quelques aspects du progrès technique au début du XXIe siècle” in *Comment peut-on (encore) être ellunien au 21e siècle?(2014)*, Paris: La Table Ronde, 150-163.
- Chabot, P.(2005). “*La Technique ou l'enjeu du siècle: cinquante ans après*” in *Jacques Ellul, penseur sans frontières(2005)*, Le Bouscat: L'Esprit du Temps, 275-282.
- Clendenin, D.(1987). *Theological Method in Jacques Ellul*,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Dravasa, É.(2005). “Jacques Ellul: Témoin de Dieu, historien de l'homme” in *Jacques Ellul penseur sans frontières(2005)*, Le Bouscat: L'Esprit du Temps, 49-59.

- Gill, D. W.(2006). “Jacques Ellul, contre les illusions : Influent auprès des intellectuels américains” in *La Croix-Forum et débats*(3 mars 2006), III.
- _____.(2014). “L’importance durable de Jacques Ellul pour l’éthique des affaires” in *Comment peut-on (encore) être ellunien au 21e siècle?*(2014), Paris: La Table Ronde, 113-132.
- Gizard, B.·Du Ferrage, A. C.(2014). “Les anticipations prophétiques de Jacques Ellul et l’évolution des marchés financiers” in *Comment peut-on (encore) être ellunien au 21e siècle?*(2014), Paris: La Table Ronde, 44-69.
- Guillebaud J. C.(2011). *La Vie vivante. Contre les nouveaux pudibonds*, Paris: Éditions des Arènes.
- Illich I.(1994). “Préface” in *Sur Jacques Ellul*(1994), Le Bouscat: l’Esprit du Temps, 11-17.
- Latouche, S.(1994). “Raison technique, raison économique et raison politique” in *Sur Jacques Ellul*(1994), Le Bouscat: l’Esprit du Temps, 103-113.
- _____.(2003). “Pour une société de décroissance” in *Le Monde diplomatique*(novembre 2003), 18-19.
- _____.(2006). *Le pari de la décroissance*, Paris: Librairie Arthème Fayard/Pluriel
- _____.(2013). *Jacques Ellul contre le totalitarisme technicien*, Neuvy-en-Champagne: Le passager clandestin.
- Lavignotte, S.(2012). *Jacques Ellul. L’espérance d’abord*, La Bégude-de-Mazenc: Éditions Olivétan.
- Porquet J.-L.(2012). *Jacques Ellul. L’homme qui avait (presque) tout prévu. Nucléaire, nanotechnologies, OGM, propagande, terrorisme...*, Paris: Le Cherche Midi.
- Rognon, F.(2012). *Généralisations Jacques Ellul. Soixante héritiers de la pensée de Jacques Ellul*, Genève: Labor et Fides.
- Sfez, L.(1994). “Technique et communication” in *Sur Jacques Ellul*, Le Bouscat: L’Esprit du Temps(1994), 243-249.
- _____.(2005). “Les stratégies paradoxaux de Jacques Ellul” in *Jacques Ellul, penseur sans frontières*(2005), Le Bouscat: L’Esprit du Temps, 33-45.
- Troude-Chastenot, P.(2005). “Jacques Ellul, L’inclassable” in *Jacques Ellul, penseur sans frontières*(2005). Le Bouscat: L’Esprit du Temps, 21-29.
- _____.(2014a). “Pour une approche ellunienne de l’affaire du Médiateur” in *Comment peut-on (encore) être ellunien au 21e siècle?*(2014), Paris: La Table Ronde, 21-43.
- _____.(2014b). “Que veut dire être ellunien?” in *Comment peut-on (encore) être ellunien au 21e siècle?*(2014), Paris: La Table Ronde, 9-19.

<Abstract>

Influence de la pensée de Jacques Ellul et l'application de sa pensée à notre époque

De nos jours, en France, un petit nombre de personnalités ont été influencées par Jacques Ellul sur le plan idéologique. Non seulement les anti-mondialistes, mais aussi les membres du mouvement écologiste radical, y compris les défenseurs de la décroissance, sont devenus de fidèles disciples de sa pensée. Aux États-Unis, les évangélistes et les chrétiens radicaux non-conformistes critiquant la société américaine et les Églises existantes, adhèrent à ses idées. Une partie des intellectuels américains ont été profondément influencés par l'argument ellunien dans divers domaines comme la science politique, la sociologie, les Média de masse, ou encore la philosophie de la technique. L'essentiel de la pensée d'Ellul, c'est la technique : c'est-à-dire, la recherche des moyens les plus efficaces dans tous les domaines. Or, cela constitue la clef de voûte de notre société moderne. A partir de cette pensée, nous pourrions nous procurer des méthodologies et outils d'interprétation sur les événements et les phénomènes caractéristiques de notre époque. Cela permettra l'analyse des différents problèmes qui ont lieu à notre époque en nous fondant sur sa démarche d'étude et sa méthode d'analyse. Nous pourrions ainsi y appliquer la pensée d'Ellul en tant que cadre d'interprétation et d'analyse. Si, par exemple, nous analysons le scandale sanitaire de 'l'affaire du Médiator' au moyen de l'outil d'interprétation ellunien, au point de vue du conflit d'intérêts, dans cette affaire il se pose un problème plus général visant la décision et la responsabilité de la démocratie. En appliquant l'analyse ellunienne pour éclaircir les causes de la crise financière mondiale, on constate que cela met en relief l'importance des facteurs techniques pourtant généralement négligés par les analystes de la finance. En outre, dans le domaine de l'éthique des affaires, en prenant au sérieux les trois problèmes qu'Ellul a posés, l'adoration de l'argent, la subordination à la technique, ainsi que le travail dominé par la nécessité, l'éthique des affaires de notre époque est susceptible de recouvrer un rôle critique et constructif. A propos des événements concernant le progrès technique, la déviance du génie génétique, la production des supervirus dans les laboratoires ainsi que 'la biologie de garage', lorsque l'on applique la pensée ellunienne à ces avancements, l'exigence consistant à savoir la rationalité de la technique afin de saisir ces événements difficiles à comprendre et d'appréhender la rationalité de ce monde actuel, s'impose.

Main Scope: Métaphysique, Philosophie de la Technique, Philosophie Contemporaine
Française

Keyword: Jacques Ellul, technique, scandale sanitaire, crise financière, éthique des affaires, progrès
technicien